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12-913 1982년 8월 27일(금) & 28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August 27 & 28,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점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SEP 2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정년퇴직연령 개념 변화중

"연령차별은 인권위배"

캐나다 인권위, 65세 은퇴자 복직명령

(오타와)「65세된 직원을 강제은퇴시킨 처사는 연령차별」이라는 역사적 판결이 내려졌다.

25일 캐나다인권위원회는 캐나다국영 철도회사(CN)가 할리팍스 거주의 직원 해리·프라이어씨를 강제은퇴시킨 것은 부당하므로 그를 직장에 복귀시키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50만명의 피고용자를 거느린 연방정부에 제도 큰 파문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인권법(Canadian Human Rights Act)에 도전, 승리한 첫번째 케이스이다.

캐나다인권법은 연방기관이 "정상"은퇴연령에 다달은 고용자들에게 정년퇴직을 강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CN 직원의 경우, 인권위는 65세가 "정상"은퇴연령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CN이 인권위의 판결에 항소할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CN철도회사 화물검수원인 프라이어씨는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37년간 근속한 경력임에도 불구, 65세 생일을 맞는 80년 11월 퇴직당했다.

시간당 $8.17을 벌고 있던 미혼의 프라이어씨는 당시 "월 $1,133의 연금을 받으며 은퇴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프라이어씨는 "연 15%의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는 최근의 경제사정으로는 물가지수가 고려되지 않는 연금은 공정치 못하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누가 아느냐"고 말했다.

프라이어씨는 인권위에 항의했고, CN측은 65세가 정상은퇴연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재판은 화물검수원의 정상은퇴연령이 반드시 65세일 필요는 없으므로 프라이어씨는 지금까지의 경력을 전부 인정받고 직장. 복귀토록 판결했다.

이제까지 CN의 전국 화물검수원 593명중 65세에 퇴직한 자는 60%였다.

직무만 충실히 이행할 경우 프라이어씨는 사망하거나 자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CN의 직장을 지킬 수 있다고 인권위 대변인은 밝혔다.

이보다 앞서 인권위는 에어·캐나다 승무원 더글라스·캠벨(60)씨가 회사의 은퇴조처에 항의, 제소한데 대해 "지금까지 에어·캐나다 승무원 80%가 60세에 정년퇴직했다는 것을 근거로 그의 강제은퇴를 정당하다."고 판결했었다.

"CCC학점·학위 기독교계서 인정"

— H목사 해명 —

본보가 26일자 머리기사로 보도한 「목회지망자에 경종」 기사에 대해 문제의 캐나다·크리스천·칼리지(CCC)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H목사는 26일 이 신학교의 학점이나 학위가 북미신학교협회(ATS: American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 of Canada & United States)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반드시 일반 기독교계의 인정을 못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토론토에서 목회중인 H목사는 "Faith Theological Seminary같은 유명한 신학교는 북미신학교에 가입하지 않았다. 어느 학교가 이 협회에 가입됐는지 여부가 그 학교의 질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크리스천·칼리지가 좋은 학교라고 누차 강조한 H목사는 크리스천·칼리지의 학점, 학위등 학문적 경력이 「일반적으로」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협회소속 학교서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목사는 이 학교가 연방정부및 마니토바주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신학교라고 말했다.

이 학교 학생중에는 10여명의 교포가 있고 [illegible] 등 중동계 이민자가 많으며 직원을 한국에 보내 학생들을 모집해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건, 내년방한

뉴스위크 보도, 중공방문길 들를듯

(워싱턴)레건대통령은 내년 상반기중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23일 발간된 30일자 뉴스위크지가 보도했다.

뉴스위크지는 백악관보좌관말을 인용해 레건대통령이 중공방문길에 한국을 들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건대통령의 아시아방문은 지난번 서유럽방문과 함께 아시아를 고루 돌아보고 외교를 다듬어 나가는 것이라고 이 잡지는 풀이했다.

뉴스위크지는 아시아방문중 한국과 중공이외에 일본, 필리핀, 싱가폴이 우선 순방지가 되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 은행" 설립

이북출신 경제인들

(서울24일=연합)한국의 제7번째 시중은행이 될 한국통일은행이 곧 설립된다.

24일 재무부 소식통이 밝힌 바에 따르면 통일은행은 이북 출신 기업인들의 지원으로 설립된 것이다.

최근 이북 5도출신 대표 75명은 성명에서 국내자본을 최대한으로 유통시켜 국가경제개발에 기여하고 장래 한국이 통일됐을 때 북한과의 경제 거래에서 주요 역할을 함을 특징으로 하는 통일은행의 설립 취지를 밝혔다.

재무부 소식통은 통일은행이 한국경제 발전에 공헌할 것임을 인정받을 경우 설립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체장애자에 차별대우

한국 대법원, 판사임명 거부

(서울26일=연합)한국 대법원은 신체장애자의 판사임명을 거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4명의 신체장애자 연수원생들의 판사임명을 거부한 대법원은 거부이유로 판사의 직책이 위엄을 필요로 하며 판사의 수요에 비해 지원 연수생들의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최근 사법연수원의 금년도 졸업생 149명중 65명을 판사로 임명했다.

반정부 인사들 오타와행 계획

전대통령 도착 슈라이어총독 출영

전두환대통령이 토론토에 오지 않는 것은 확실시된다.

관례에 따라 캐나다의 국가수반 역할을 수행하는 에드·슈라이어총독 부처의 영접을 받는 전두환대통령 내외 일행은 28일 하오2시 오타와 공군기지 터미날에 내려 간단한 환영절차를 마친후 2시45분 총독관저에서 여장을 푼다.

이날 공항에는 이규현 주캐나다대사등 한국정부인사, 외무성 관리, 주한 캐나다 윌리엄·바우어 대사 내외등이 출영한다. 대통령을 태운 KAL소속 보잉 747-SP점보기가 도착하면 캐나다군의 축포가 발사되고 간단한 환영사와 답사가 교환된다.

공항에서 총독관저까지의 카·퍼레이드는 교포들과 캐나다시민들의 환영을 받는다.

광주의거기념사업회(회장 윤택순)와 반정부 내지 반국가 인사들이 주동이된 일부 단체는 버스로 오타와에 갈 것을 계획하고 있어 캐나다에 처음 오는 전대통령은 씁쓸한 첫날을 맞을지도 모른다.

하오 3시30분 슈라이어총독과 환담을 나눈 후 하오6시 대사관저에서 약 1천명의 캐나다교포들과 만난다.

전대통령은 29일 헬리콥타편으로 쾌벡근교 세인트 앤느의 벨라브원호병원을 방문, 6.25동란에 캐나다군으로 참전했다가 아직도 병상에 누워있는 상이용사들을 방문한다.

29일의 일정은 12시까지 원호병원 방문만으로 짜여졌다.

30일에는 예정대로 트루도수상과의 회담등 공식행사로 하루를 지낸후 31일 11시10분 오타와군기지를 떠나 서울로 향한다.

이번에 대통령일행이 타고올 비행기는 대한항공 소속의 747-SP점보기로 3백여명이 탈 수 있다.

전대통령은 애초 토론토를 방문, 교민과도 만날 예정이었으나 보안상의 이유로 이 계획이 일단 취소됐다.

대통령의 토론토 방문을 강력히 권고한 토론토총영사관은 본국정부와의 협의에 따라 대통령의 리셥션장소 2곳을 선정, 내부사진등 관계자료를 본국에 보냈으며 메트로·토론토 경찰도 대통령이 토론토에 오는 것을 기정사실로 알고 정보수집등 보안계획을 세웠었다.

대체로 대통령의 일정은 대통령경호실에서 신중히 검토된다.

체이스맨하탄은행 금리인하

80년10월이후 최저기록

(시카고지사)체이스맨하탄뱅크는 20일 프라임 래잇을 14%에서 13.5%로 인하했다.

프라임 래잇 13.5%는 1980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이자율이다.

뉴욕 타임스 20일자는 이자율 인하가 융자수요 감소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행정부와 연방준비은행의 정책 변경에 따른 것이며 경제회복을 위해 주요한 뒷받침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직 실업률이 높은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감세로 인한 소비지출의 증가가 가능하고 주식시장 투자증대로 기업투자증가가 따를 것이므로 경제는 서서히 회복될 것이라고 이 기사는 전했다.

그러나 이자율 하락으로 융자수요가 급증할 경우 이자는 하락을 멈출 가능성도 있으나 이번주에 주식,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기록적으로 급증, 금융계와 행정부에서 경제회복이 다가온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으며 이것은 기업가들과 소비자들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기사는 전했다.

록키의 절경을 렌즈에

사진 : 이성준

호수의 나라의 또하나의 명물「모레인 호」
◆카메라 : 캐논 FIB. 렌즈 : 100㎜~200즘. 필름 : 코닥칼라 II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란콤화장품 대리점 귀국선물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오늘의 예금금리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뚜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3.5%		13%
90일	14%		13.75%
180일	14.25%	14.25%	13.75%
365일	14.5%	14.5%	13.75%

※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533-9387~8

환 영

전두환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캐나다
공식순방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카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의 통상및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것으로 기원드립니다. 1982년 8월

대한무역진흥공사

토론토무역관 (416)977-8784
몬트리얼무역관 (514)878-3425
뱅쿠버무역관 (604)683-1820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서울 세계야구대회

한국·미국·일본패권다툼

최동원에관심집중

◆오는 9월4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야구선수권 대회의 캐나다 선수단이 확정됐다. 지난 여름내내 32명의 선수를 놓고 윈저대학구장서 맹훈련을 쌓은 캐나다야구협회는 최종선수단을 22명으로 축소하고, 빌·매켄지 이하 3명의 코치진을 확정, 22일 한국으로 떠났다. 캐나다대표팀은 23일부터 타이완에서 개최된 국제친선야구대회에 참석한 후 9월2일 서울에 간다.

한편 27회 세계 아마추어 야구선수권 대회를 주최하는 대한야구협회는 콜럼비아와 쿠바의 불참으로 참가국을 10팀으로 축소, 대회일정을 재조정하여 4일~18일에서 4일~14일로 단축, 서울, 잠실, 인천 3개구장에서 풀리그로 경기를 벌인다.

80년 동경에서 열린 26회 대회 우승팀인 쿠바는 선수부족 이유로 불참을 통고했으나 실질적 이유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등 이유로 불참을 통고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정식으로 공산권국가 선수들이 한국에서 개최되는 운동경기에 참가한 적은 없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아마야구의 최강 쿠바가 불참, 한국·미국·일본이 패권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26회 대회에서 5위를 차지한 캐나다는 금년 서울대회에서는 4강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작년 에드몬톤에서 열린 대륙간컵 쟁탈 야구대회에서 미국, 쿠바를 물리치고도 한국에 1-0으로 패해 4위로 물러났던 캐나다는 작년도 선수진에서 5명의 투수진을 교체 보강했다.

출발에 앞서 선수단의 빌·매켄지 감독은 "금년에는 미국 대학에서 선수생활을 하는 캐나다 선수들이 총집결, 대회 참가사상 가장 강력한 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대회 첫날 미국과의 경기를 스타트로 11일에 한국과 대전하며, 10일 서울운동장에서 일본과의 경기등 총 9게임을 갖는다.

토론토·블루제이스와 몬트리얼·엑스포스 2개팀을 갖고 있는 캐나다는 점점 야구의 인기를 더해가고 있어 아마추어 야구에서도 상위진출이 예상된다. 세계야구의 최고봉인 메이저리그에는 해마다 캐나다 출신 2,3명이 스카웃된다.

작년도 대표팀에서도 캠·워커가 밀워키에, 데이브·몬타나리가 시카고·컵스에, 페리·리착이 토론토에 스카웃됐다.

이번 서울대회에도 미국·일본의 스카우터들이 총집결, 황금의 선수들을 노린다.

한편 블루제이스와의 스카웃문제를 놓고 설전중인 최동원 선수는 계약금을 15만달러를 요구,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나, 이번 대회의 결과에 따라 최선수의 줏가가 다시 결정된다.

블루제이스의 인사부장 엘리옷·왈리씨는 "이번 서울대회에 최선수와의 계약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선수들을 스카웃하기 위해 2-3명의 관계자를 파견한다"고 말했다.

최동원 선수는 작년 9월 블루제이스와 4년간 60만달러에 계약을 서명했으나 보너스 조항문제를 놓고 계약사기를 주장 계약무효를 선언했다.

블루제이스측은 계약은 아직 유효하다면서 "계약금등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동원 선수의 스카웃문제는 현재 조건등으로 난항에 빠졌으나, 이미 블루제이스측에서 아메리칸리그의 승인을 받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우선권은 블루제이스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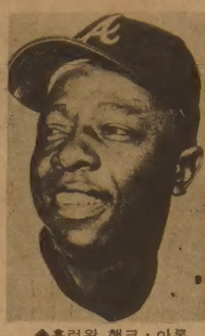
또 일본 프로팀들도 미국 메이저리그와 협정을 맺고 있어 최동원을 스카웃할 수는 없다. 금년에 창설된 한국프로리그는 미·일과 아직 계약이 안됐으나 지난 몬트리얼 올스타게임에 참관했던 서종철 프로야구 커미셔너는 "최와 블루제이스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면 한국팀들은 최를 스카웃할 수 없다"고 못박아, 최의 갈길은 토론토 외에는 없다.

최가 끝까지 계약무효를 주장하려면 그가 주장하는 "계약금이 없었다", "계약조항을 이해 못했다"는 것을 법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세계야구대회에서의 최선수의 활약 여부이다. 만약 이번 대회에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프로야구 스카우터들은 최의 나이가 이미 25세로 발전이 없고, 해마다 콘디션이 들쑥날쑥하다고 판단, 최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한국프로팀에서의 줏가도 떨어지게 된다.

◆서울야구대회에서 4강 진입을 노리는 캐나다선수단



◆홈런왕 행크·아론.

행크·아론 서울에 타격지도 위해

(서울26일=연합)미국의 홈런왕 행크·아론이 26일 아침 서울에 도착했다.

미국의 프로야구 아틀란타·브레이브즈의 부회장으로 있는 아론은 서울에서 타격지도회를 갖는다.

아틀란타·브레이브즈팀은 10월중 방한, 프로야구단과 친선게임을 가질 예정이다.

행크·아론은 20년간의 선수생활중 통산 755개의 홈런을 날려 메이저리그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가 뜨거운 우정으로 만나는 곳

—토론토 한국일보—

검찰이 범인조작

이철수재판 증인들 증언

(상항지사)23일 이철수재판에서 처음으로 중국인이 증인으로 나와, 이철수씨가 경찰에 의해 조작된 범인이었음을 증언했다.

이날 중국인 「루」씨는 증언을 통해 『차이나타운 사건 당시 도망쳐 오는 범인을 목격했으며, 그가 총을 버리는 것도 보았는데 그는 이철수씨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지난 19년간 계속 차이나타운에서 거주했다는 「루」씨는 『이철수씨는 분명히 범인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동안 신변의 위험을 느껴 재판정에 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변호인 토니·세라변호사는 이날 「루」씨와의 증인심문을 통해 12명 배심원에게 『이철수씨가 검찰에 의해 조작된 범인이었음이 다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하오 속개된 재판에 출정한 증인 마이크·노박 부부도 모두 이철수씨가 범인이 아니라고 증언했다.

노박씨는 사건당시 자녀들과 차이나타운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에 15피트 전방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목격했는데, 『범인은 분명히 이철수씨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의 문제점 6

이민교회의 분열은 바람직한 것인가?

김 낙 중 (해밀턴한인연합교회 담임)

교회 수의 증가는 기존 교회의 분열뿐 아니라 가족이나 친지를 중심으로 형성된 작은 교회들에 의해서도 이루어 졌다. 이런 경우에 가족을 초청하기 위하여 교회가 서고, 다른 방법으로 이민이 가능하지 않은 목사가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얻게 된다. 혹은 어느 날 갑자기 소명 의식을 자각하고 국내 혹은 로스앤젤리스 등지의 의심쩍은 기관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는 장바닥에 다라이 펼쳐 놓고 장사 시작하듯 교회 사업을 벌이는 경우도 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부교역자 초청한다고 이민 브로커 노릇을 하기도 한다.

앞으로 군소 교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 확실한 것이 이제는 토론토에 한인 교단에 의하여 운영되는 신학교가 두개나 생겼기 때문이다. 소정의 과정을 마치면 석사 학위 취득과 함께 안수받은 교역자가 될 수 있도록 교역자 대량 생산 체제를 제도적으로 확립하였다. 수년후에는 구역 확보와 교인 쟁탈의 싸움이 더욱 야비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자파 세력의 부식과 단소 콤플렉스의 불식을 위하여 구색만 갖추어 양산화를 서두르는 지도자들의 파렴치는 그렇다고 치고, 왜 평신도는 주어진 직업과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지 않고 이른바 <성직>을 넘보게 될까? '하는 짓들 보니 나보다 못난 사람들인데 꽤나 대우받네.'하는 선망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개신교와 가톨릭을 막론하고 평신도 사제직이 강조되고 평신도의 <교회>안팎에서의 활동 영역이 확장되는 추세인데 꼭 <선별>(?)을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해묵은 하사관이 장교로 특채되는 것이 본인의 영광이겠지만 임관이 아니라 임관됨을 알고나 있는지?

현장의 격무에 쫓겨서 재교육의 기회를 놓친 일선 목회자들이 그래도 틈을 내어 학교에 적을 두고 일하면서 준비하는 노력은 얼마나 가상한가? 고국의 중견 교역자들의 단골 기호 품목인 목회학 박사학위는 너무 튀어서 피곤해진 목회자들에게 주는 위로 훈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새로운 목양 자원의 취득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기회를 D.Min.과정이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직한 노력은 마다하고 명함에 박을 이상한 학위를 의심쩍은 출처에서 손쉽게 제공받은 목회자들이 바란 보상은 무엇이었을까? 버젓이 학위 취득을 공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사를 숨기고 기본 과정(M.Div.)에 재입학한 양심있는 학구파(?)도 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스타일로 봉사하기 위해서 자질향상과 기술 개발과 목회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영적 소성을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남들이 웃는 겉치레의 실속없는 명예를 위해서 잠간 목양에서 한눈파는데 그치는 공부라면 그게 어찌 하나님께 영광되고 자신에게 덕이 되랴?

교인의 신앙은 담임 목사의 신앙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교인의 윤리는 목회자의 윤리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 문제와 더불어 해결책도 결국 교역자에게서 구하는 도리 밖에 없다. 그러나 속에는 탐욕이 가득하고 겉을 경건으로 바른 회칠한 무덤같은 교역자가 성전을 이익 발생의 현장으로 간주한다면 교회의 장래는 어떨까?

교역자 중에는 입버릇처럼 목회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다. 양이 목자의 가슴에 비수를 박는다고 한탄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역자에게 어울리지 의 파탄과 잦은 실수에 대한 정당한 비판까지 억울한 오해와 핍박으로 돌려져서는 안된다. 대접받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러한 대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리라는 사실도 예견했어야 한다. 목회가 실로 어려운 자리임에게 나의 피로움과 좌절이나 일의 분량을 말할 수 없고 작은 고통에 대해서 위안을 찾을 수 없고 주관적을 기분좋게 받아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말씀의 내용은 또 어떤가? 공소한 관념의 유희가 아니면 원색적인 언어로 심판의 엄박을 위협하거나 복채를 두둑이 바치면 재앙을 면하고 만사형통 하리라는 간사스러운 주문으로 일관한다. 위로와 약속의 말씀으로 기쁨을 주지 않고 가학성과 피학대성 음란증이 어울려 과도한 감각적 쾌락의 잔치를 벌린다. 보약이라면 사족을 못쓰고 비싼 값을 아까워하지 않고 지불하는 사람들이 영혼 건강을 위해서는 보약 대신에 최면성 흥분제와 습관성 자극제를 주문한다. 양식있는 의사라면 어찌 환자의 주문대로 처방할 수 있을까?

역사의식이 결여된 교역자는 현실적인 이슈에 외면하면서 설교는 시간성이 아닌 영원만을 주제로 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육화된 신(incarnated)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현장에 탄생하셔서 상황적인 구조악과 투쟁적인 투쟁을 전개하며 땀이 피가되어 떨어지는 기도를 하실때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대들은 한시도 깨어 있지 못하고 잠을 잘텐가? 닭이 운 다음에야 뛰어 나가 통곡할텐가?

(계 속)

캐나다속의 참된 한국인의 목소리

—토론토 한국일보—

Noor Es (INTERNATIONAL)
Importers & Wholesalers
UNIT 7, 777 WARDEN AVENUE
SCARBOROUGH, ONTARIO Tel. 757-9271

BACK to SCHOOL

Money-making Specials

Noor Es (INTERNATIONAL)
Importers & Wholesalers
UNIT 7, 777 WARDEN AVENUE
SCARBOROUGH, ONTARIO Tel. 757-9271

Hilroy

			Retail	Cost
05-235	100 SHEET LINED	30	169	75
05-224	PLAIN	30	169	75
05-233	200 SHEET LINED	20	299	137
05-225	PLAIN	20	299	137
05-232	250 SHEET LINED	10	399	169
05-240	400 SHEET LINED	10	699	325
05-238	500 SHEET LINED	8	749	350
12-102	4 PACK EXERCISE BOOKS	40	249	125
13-121	COIL EXERCISE BOOKS	40	149	75
1669	COIL EXERCISE BOOKS WITH PICTURE COVER. ASSORTED SPACE WAR, NHL, GUINESS ETC	48	199	59
21-120	TYPE PAPER TABLETS	80	89	46
21-220	TYPE PAPER PACK 144 SHEETS	30	249	119
06-248	REGULAR DUOTANGS 100 DISPLAY	1	46	21
06-241	" " 5 PACK	40	249	125
06-448	3 HOLE DUOTANGS 80 DISPLAY	1	49	25
06-449	" " 4 PACK	50	225	115
41-400	FUNTIME ART PAPER	60	189	95
28-001	SCHOOL BOX SET	6	399	180
53-122	STENO BOOKS	20	89	45

BINDERS

			Retail	Cost
24-402	PRESSBOARD BINDERS 5/8"	30	249	110
24-403	" " 1"	20	269	110
2107	SUPER PRESS BINDERS	72	119	60
P21	POLY PRESS BINDERS	72	129	65
P51	GAGE BOARD BINDERS ½"	12	159	60
24-601	POLY BINDERS 5/8"	20	299	119
24-602	" 1"	20	399	125
24-603	" 1½"	10	599	250
04-529	VINYL BINDERS 1"	20	369	120
04-539	" 1½"	10	479	175
04-549	" 2"	10	599	230
17-229	VINYL FOLDING CLIPBOARDS	24	329	110

BIC

P28	BIC PEN MEDIUM BLUE (BULK ONLY)	144	35	15
P29	BIC PEN. VALU PACK	24	195	95
P30	BIC PEN. 3 PACK	24	105	45
P31	BIC CRAYON MARKERS. 7 PACK	24	195	80
P32	BIC ULTRA FINE MARKERS. BLUE & BLACK	12	99	45

FaberCastell Laurentien

			Retail	Cost
1833	LAURENTIEN COLOR PENCILS 8	12	325	140
1834	" " 12	12	459	200
1835	" " 20	6	699	325
P22	" " 24	6	799	350
P25	LAURENTIEN FLO MARKERS 12	24	159	78
1859	LAURENTIEN MARKERS 8	24	179	90
1860	" " 12	24	259	130
1861	" " 20	24	399	195
1885	HB PENCILS 144 IN TUB	1	25	13
1856	HB PENCILS 6 PACK	24	159	79
P23	" 10 PACK	24	249	110
P24	VENUS VELVET PENCILS	50	39	15
P26	VENUS 3 STICK PEN CARDED	36	89	45
P27	ULTRA FINE LASER PENS	48	99	49
P67	VENUS GOLIATH PENCILS	12	99	49
P66	VENUS COL-E-RASE PENCILS	12	149	75
P64	CADOMARK MARKERS BLACK - RED - GREEN	10	99	35
P61	POINT 5 MECHANICAL PENCIL & LEAD PACK	12	329	165

crayons

P33	WHITMAN CRAYONS 8	24	75	35
P34	" " 16 PLASTIC BOX	24	159	69
1802	CRAYOLA CRAYONS 16	12	135	65
P35	WHITE CHALK	12	75	34
P36	COLOURED CHALK	12	85	45

PAPER M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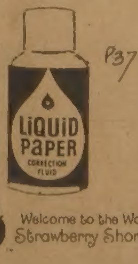
			Retail	Cost
2175	ERASERMATE PENS	12	249	115
1690	STANDARD PENS	12	169	85
1691	MALIBU PENS	12	219	110
1692	VILLAGER PENS	12	299	150
1693	PROFILE PENS	12	450	225

SHEAFFER PEN

1891	SHEAFFER CARTRIDGE PENS	12	299	150
1892	" BALL POINT PENS	12	269	135
2203	" KALEIDOSCOPE PENS	12	399	195

Sellotape

1403	1000" CLEAR TAPE	48	109	55
1405	800" MAGIC TAPE	12	129	65



LIQUID PAPER® Correction Fluid

P37 LIQUID PAPER 2 PACK 20 350 159
80¢ PER SINGLE BOTTLE

Welcome to the World of Strawberry Shortcake

"SMURF"

The MUPPETS

P38	SMURF SCHOOL TOTE BAGS	12	449	240
P39	SMURF SCHOOL BAGS	12	649	325
2230	MUPPET SCHOOL TOTE BAGS	12	449	200
2214	MUPPET SCHOOL KIT	12	299	150
2220	MUPPET GIANT PENCIL SHAPE CASE	12	229	99
2222	MUPPET SHARPENERS	12	249	125
P40	SUPERHEROES PENCIL CASES	24	99	39
P41	RAGGEDY ANNE & ANDY PENCIL CASES	24	99	39
P42	SUPERHEROES LUNCH MONEY PENCILCASES	24	129	55
P43	RAGGEDY ANNE LUNCH MONEY PENCIL CASES	24	129	55
1853	PLAID 3 HOLE PENCIL CASES	24	99	39
1663	STRAWBERRY SHORTCAKE MEMO PADS 3X5	24	59	33
1664	" MEMO PADS 4X6	24	59	33
1665	" DIARY	12	399	216
1666	" MATCHBOOK PADS	24	79	44
2223	" SCRIBBLE PADS	12	269	150
2225	" PENCIL TABLETS	12	159	87
2226	" CONTRUCTION PAPER TABLETS	12	349	190
2125	SCHOOL TOOLS	12	399	200
2122	MORE SCHOOL TOOLS	12	399	200
2126	WEBSTERS DICTIONARY	12	329	150
2127	ROGETS THESAURUS	12	329	150
2128	FLINTSTONES DICTIONARY	12	329	150

YO-YO free

BUY 6 — 1 FREE

MA165	CHAMPION YO YO	12	249	150
MA166	PRO-TOURNAMENT YO YO	12	299	180

			Retail	Cost
1676	ALCO 9 PC. MATHSET PLASTIC BOX	12	199	99
1678	BUSTO DELUXE MATH SET. PLASTIC	12	329	165
2165	BUFFALO MATH SET. METAL BOX	12	319	160
P48	PROTRACTORS	24	19	09
P49	GRANADA COLOUR PENCILS 6's	12	99	50
P50	" " " 12's	12	169	85
2211	DISPENCILS	72	59	25
1870	PINK ERASERS	36	10	05
1636	COMBINATION LOCK DIAL	12	239	120
1637	" " FLAT	12	159	69
1621	WOOD RULER 12"	36	39	15
1884	PLASTIC RULER 12"	36	39	20
1603	PAINT SET	12	79	40
1604	STARS	12	69	35
1606	RUBBER BANDS	12	59	30
1612	PAPER CLIPS	12	59	30
1614	ERASERS 7 PACK	12	69	35
1617	COMPASS	12	79	40
1622	THUMBTACKS	12	79	40
1611	PAPER FASTENERS	12	69	35
1641	2 HOLE PENCIL SHARPENERS	12	49	25
P53	CYLINDER PENCIL SHARPENERS	12	59	25

COLOURING BOOKS

P44	COLOURING BOOK ASSORTMENT A	48	25	10
P45	" " " B	48	15	05

mpc FAST 111's

amt

P46	MPC FAST 111's MODEL KITS	6	649	300
P47	AMT VANS & CARS MODEL KITS	6	899	375

全斗煥 大統領 閣下 内外분의 카나다 公式 訪問을 衷心으로 歡迎합니다.

大統領閣下 内外분의 歷史的인 카나다 訪問을 契機로 韓國과 카나다 兩國間의 傳統的 紐帶와 友好關係가 더욱 敦篤해지고 나아가 經濟, 文化等 모든 分野에 걸친 相互協力의 바탕이 더욱 굳건해짐으로써 兩國이 偉大한 太平洋時代의 開幕을 위한 貴重하고도 强力한 同伴者가 되기를 衷心으로 祈願합니다.

KAL

大韓航空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25일 YMCA 여름학교 학예회에서 합창하는 학생들.

Y여름학교 학예회 8주간·150명 수업

한인 YMCA의 토론토 여름학교가 25일 학예회를 끝으로 8주간의 학기를 마쳤다.

이날 오후 6시 헤이든·파 고등학교 강당에서 약 1시간반동안 1백여명 학부형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한 학예회는 전체 여름학교 학생들과 학부형들과의 힘찬 합창 "나의 살던 고향"으로 막을 내렸다.

이날 학예회 순서는 연극 "새앙쥐의 결혼"을 비롯 피아노, 바이올린, 무용, 기타 연주, 합창등으로 엮어졌고 학생들의 미술작품이 전시됐다.

총 150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여름학교의 교육과목은 수영, 한글, 미술, 무용, 태권도,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등이었고 특히 수학, 불어, 영어 개인지도와 노인및 성인 영어교실이 이채로왔다.

Y여름학교는 큐·비치, 온타리오·플레이스, 센트럴·아일랜드, 원더랜드 등을 돌아보는 야외수업도 아울러 가졌다.

"연극동호인 모입시다"
3일 8시 삼우스튜디오

연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다.

지난 22일 10여명의 교민 연극 동호인들은 준비모임을 갖고 오는 9월3일(금) 저녁 8시 연극에 관심과 정열을 갖고 극예술활동에 참가하고자 하는 교민들을 모두 모이게 하는 동호인 단체 발기모임을 갖기로 합의했다.

발기모임의 장소는 조각가 장연탁씨의 삼우 스튜디오(58 Wade Ave. 랜스다운 & 블루어 서북쪽).

새로 결성될 단체는 연극 예술을 연구하며, 교민을 위한 체전을 마련하고, 때로 에트닉 연극제에도 참여 정열과 예술성을 발휘함으로써 개체의 예술성을 승화시키고, 교민의 정신문화 수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순수한 극예술 단체가 될것을 지향한다고 발기취지를 밝혔다.

연락처는 이장성 960-0074, 김상옥 225-7980, 이광민 274-8889.

CNE 음악경연 피아노·듀엣 1등

키와니스대회와 필·뮤직·페스티발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이진경, 이후찬 남매가 CNE 뮤직·페스티발에서 또 입상했다.

이들 남매는 8세 피아노 듀엣부문에서 1등, 진경양이 독주부문에서 1등과 2등, 후찬군 역시 독주부문에서 1등과 4등을 각각 차지했다.

8월18일부터 9월5일까지 익시비션 기간중에 거행되는 CNE 뮤직·페스티발의 심사위원 레슬리·킨톤씨는 이들 남매가 좋은 리듬과 풍부한 음악성으로 곡을 완전히 소화시켰다고 평했다.

◆듀엣으로 연주중인 이후찬·진경남매.

한국일보 533-2361

노스욕 민속제전 자원봉사자 급구

노스욕시는 오는 9월10일부터 3일간 얼·베일즈·파에서 개최되는 노스욕 복합문화축제를 위해 일할 자원봉사자를 긴급 모집한다.

노스욕내 각 에트닉그룹이 다양한 민족문화예술을 펼칠 이 축제를 위해 일하고 싶은 사람은 636-1880 ext.28 바바·램프콥씨에게 연락하도록.

근무시간은 지원자의 사정에 맞도록 배정된다.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꽃의 사나이 <57>
어떤 殺人 ④
"오빠가 그놈을 처치하면 2천만원을…"

『만일 예상이 빗나가면 어떻게 하지요?』

문자는 잔뜩 겁에 질려 물었다.

『그때는 각오해야지. 네 남편의 처분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지. 그런 각오 없이는 해결할 방도가 없다. 그놈의 요구대로 들어주다가는 결말이 더 비참해질 뿐이야. 그러니까 한번 모험을 해보는거야.』

『그래서 어떡하자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놈을 만나 보겠어.』

『만나서 어떡 하실려구요?』

『결과가 어떻게 될는지는 나도 몰라. 하여간 그놈을 만나봐야 어떤 수를 써도 쓸거 아니야. 너를 도와주려고해도 그놈 얼굴도 모르니 어떻게 하겠니? 잘 생각해봐.』

그는 누이가 떨고있는것을 알수가 있었다. 그녀는 방바닥을 응시한채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이윽고 그녀가 고개를 쳐들었다.

『알겠어요. 오빠 의견에 따르겠어요. 막판에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다행이다. 최악의 사태가 와도 절망해서는 안된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잘못이 있는 법이고, 그 잘못을 거울삼아 재기하는 데 큰 보람이 있는거야.』

그런 말을 하고나니 괜히 멋쩍었다. 그런말이 누이의 귀에 들어갈리 만무했다.

『내일 전화가 걸려오면 뭐라고 하지요?』

『이렇게 하자. 왜 입금을 시키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다리를 다쳐서 못나갔다고 그래. 거액을 남한테 맡길 수도 없고해서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 놈이 돈을 가질러 집으로 찾아오겠지.』

『싫어요. 집으로 오게하는건 싫어요.』

『집으로 오게하는 수밖에 없어. 다리를 다쳤다는 사람이 외출할 수가 있어? 그건 안되지. 그놈이 이 집으로 오면 내가 나서서 이야기할께. 넌 가만 있어. 그리고 그놈이 오기전에 가정부를 내보내. 집에는 너하고 나하고만 있어야해.』

『오빠만 믿겠어요.』

그녀는 오빠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어. 큰 수술을 했는데 쉬지 않으면 안돼.』

그는 누이를 부축하면서 [illegible] 나섰다.

그녀는 오빠의 팔짱을 끼고 서있는 동안 더없이 처참한 기분을 맛보고 있었다. 자신의 육신이 갈기갈기 찢긴 기분이었다.

『내일은 내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너한테 바로 가마. 그놈 전화를 기다려야지.』

『오빠, 미안해요.』

그녀는 눈물이 나오려는것을 참았다.

『그런 말은 듣기 싫다.』

『그놈을 처리해주시면 오빠한테 2천만원을 드리겠어요.』

그는 멈칫하고 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시선을 허공으로 던졌다.

『그놈한테 주느니 오빠한테 드리겠어요.』

그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때 택시가 왔다.

『식사도 많이하고 푹자둬.』

그는 누이를 택시속으로 밀어넣으면서 말했다.

문자는 기대에 찬눈으로 오빠를 바라보고나서 시선을 돌렸다.

朴 男 그림

감사인사

이번 저의 아내 장헬레나의 장례식에 문상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인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심 바라옵고, 우선 지면을 통하여 인사 드립니다.

1982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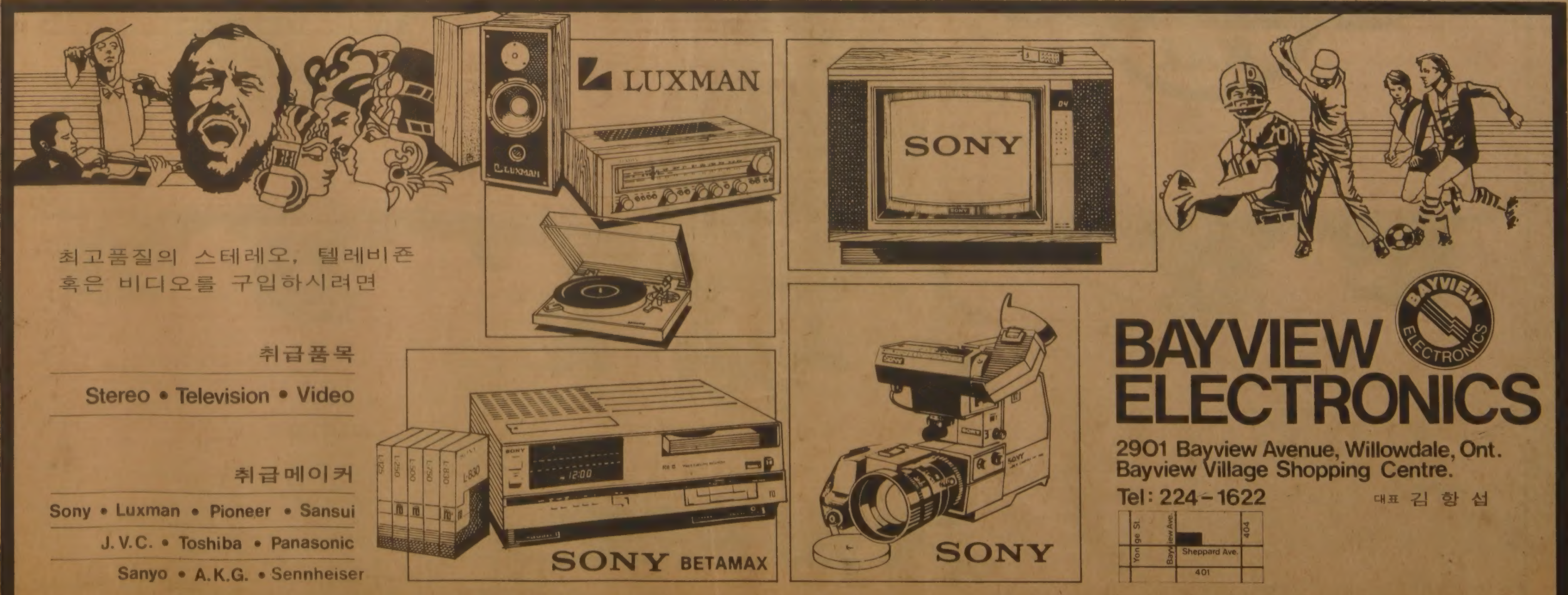
장 득남 유가족 일동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배이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 243-9544
1391 WESTON RD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三國志 447
글·高羽榮·그림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레이건 내년 訪韓

上半期중、中共등 亞洲순방길에

뉴스위크報道 日·比·싱가포르·濠洲도 들를듯

【워싱턴24日=李文熙특파원】 레이건美대통령은 내년 상반기중 한국을 방문할것같다고 23일 발행된 30일자 뉴스위크지가 보도했다.

뉴스위크지는 백악관 보좌관들의 말을 인용, 레이건대통령이 중공을 방문하는길에 한국을 들르게될것이라고 전했다.

레이건대통령의 아시아방문은 지난봄 西歐방문에 상응하는것이며 그가 유럽과 아시아를 고루 돌아보면서 外交를 전개해나간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것이라고 동지는 풀이했다.

뉴스위크지는 아시아 순방중 들를 나라로 한국 중공 이외에 일본 필리핀 싱가포르를 우선꼽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추가될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레이건 美大統領

레이건대통령은 작년 2월 韓美정상회담때 訪韓초청을 수락했으며 한국을 적절한 시기에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그후에도 밝힌바 있다.

레이건대통령의 아시아방문보도는 이른바 제2上海성명발표로 臺灣을 둘러싼 美·중공간 불편한관계가 해소되었고 일본이 오래 미뤄온 방위력증강계획을 일부 실천에 옮기는 단계에 나온것이어서 실현성을 더해주고 있다.

구체연락 없었다 外務部당국자

레이건 대통령의 訪韓보도에 대해 외무부 당국자는 24일 『현시점에서 뭐라고 말할수없다』면서 『보도가 사실이라면 매우 환영할만한일』이라고 말했다.

天然資源개발 合作증진

韓·가봉 共同성명 民間부문 雙務的협력 촉진도

全대통령 세네갈로、오늘 頂上會談

◇全斗煥대통령이 가봉 리브레빌市廳을 방문, 市長으로부터 행운의 열쇠를 증정받고 있다. 【리브레빌(가봉) 23日韓=聯】

【다카르·리브레빌=尹國炳특파원】 2박3일동안의 가봉공식방문을 마친 全斗煥대통령내외는 24일 하오3시(한국시간24일자정) 아프리카 마지막 순방국인 세네갈의 다카르·요프 국제공항에 도착, 디우프대통령의 따뜻한 영접을 받았다.

이날상오 가봉을 떠나 4시간 40분간의 비행끝에 세네갈에 안착한 全대통령은 공항에서 디우프대통령의 소개로 하비브·티암수상등 영접인사들을 소개받고 21발의 예포가 울려퍼지는 가운데 의장대를 사열, 디우프대통령과 공항국빈실에서 잠시 환담을 나누었다.

全대통령은 이어 방명록에 서명한뒤 디우프대통령과 함께 국빈차에 동승, 영빈관에 도착했는데 全대통령은 25일상오 디우프대통령과 頂上회담을 갖고 공동관심사를 협의한다.

가봉을출발하기앞서 全斗煥대통령과 엘·하지·오마르·봉고 가봉대통령은 24일 하오 韓·가봉 두나라간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위해 협력범위를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하고 이와관련하여 천연자원개발과 기술이전및 양국간의 기술移轉을위한 合作사업을 장려하고 雙務的협력을 증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나라 대통령은 全대통령의 2박3일간에걸친 가봉공식방문을 결산하며 발표한 全文17개항의 이공동성명에서 양국간의 쌍무적협력증진과 관련, 『양국대통령은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韓物探査작업(무나나 우라늄광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있음에 만족을 표시하고 互惠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 민간부문간의 협력을 더욱 촉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나라 대통령은 또 이성명에서 『韓·가봉 공동위원회의 조속한 개최가 양국간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바람직하며 航空협정 海運협정및投資보호협정의 체결이 양국간의 통상관계를 활성화하고 강화할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두나라 대통령은 또 『交易조건의 악화와 제3세계의 계속적인 빈곤으로 특징지어지는 세계 경제상황을 검토, 南北대화 문제가 세계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하는 문제중의 하나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개발도상국의 특수한 필요와 이익을 고려하여 보다 정당한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할 목적으로 현재 제기되어 있는 포괄적 협상이 조속히 개최될것』을 희망했으며 특히 『全대통령은 한국과 아프리카 대륙간의협력을 가일층 공고히 하기위해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회원국이되기를 희망했다』고 이공동성명은밝혔다.

봉고대통령은 특히 이성명에서 『한국이 평화적 방법으로 한반도통일을 실현시키려는 모든 주도적 노력을 계속 성원、지지할것이며 유엔 非同盟운동및 여타 국제회의에서도 이러한입장을 취할것임을 약속하고 南北韓유엔가입에관한 한국민의노력도 적극 지지 환영한다』고강조했다.

鄧小平 副主席사임說

9월 12全大會때 총서기국 胡耀邦·趙紫陽영도

【北京23日UPI=聯合】 중공당주석 胡耀邦은 23일 오는 9월1일 개최예정인 전당대회에서는 자신과 趙紫陽수상이영도한 강력한 총서기국을 구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胡耀邦은 또한 毛澤東사후 중공의 실권자인鄧小平이 전당대회에서 당부주석직을 확인할 것이라는 보도들을 확인했다.

그는 이날 중공을방문중인 암리·피게 AFP통신사 사장과의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鄧小平이 중공정계에서 주요한역할을 계속할것이라고 말했다.

중공관영 소식통들은 鄧이 새당헌에의해 신설되는 당자문위원회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胡耀邦은 鄧이 정치일선에서 물러나기위해 ①당총서기국창설②자신의 당부주석직사임③외국고관들과의 회담축소등 3단계조치를 취해왔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서기국이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전위」기구가 될것이며 지금까지 집행권을 가졌던 정치국(23명)은 「고위급결정」이 필요한 문제들만 다루는 「제2선」에 머물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民族史觀 정립 民正、特委구성

民正黨은 民族史觀의 정립과 민족정기를 계승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제반사업을 전개하기위한 기구로 民族史觀정립특별위원회(假稱)를 구성하기로 했다.

權翊鉉사무총장은 24일 특별위는 중앙집행위원級으로 위원장을 人選하고 위원은 黨內인사및 일부전문가등 20명이내로 구성키로했다』고 밝혔다.

무인신문판매대
불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社會漫評

〃난데없이 그건 또…〃

"歪曲오래끌면 日손해"

李文敎 警告 미쓰즈까·모리 두自民議員 맞아

◇李奎浩문교부장관은 역사교과서 왜곡사건과관련, 방한중인 일본 自民黨소속 모리·요시로의원㊧과 미쓰즈까·히로시의원㊨의 방문을 받았다.

李奎浩문교부장관은 24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과 관련, 방한중인 일본집권 自民黨소속 미쓰즈까·히로시(三塚博) 모리·요시로(森喜朗) 두의원의 방문을 받고 『교과서왜곡부분은 빨리 고치는게 좋다. 오래끌면 끌수록 일본은 손해를 보게 될것이다』 말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계속 더 강경한 자세로 이문제를 제기할것이며 어떠한 외교적인 흥정에 의해서도 포기되지않을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날 하오2시30분부터 40분간 일본측 두의원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李장관은 또 『이번사건으로 일본에 대해서 매우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이유는 양식있는 세계의 모든 국민들이 제국주의 식민시대를 저주하고있으며 우리시대가 국가간 상호긴밀한 협조관계를 요구하고 있는데 바로이때 일본이 이러한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또 한국사람을 위해서도 유감된일이다. 일본은 우리과거의 아픈상처를 건드렸으며 이로인해 앞으로도 계속 일본을 경계하지 않을수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어 『일본이 한때 내정문제를 이유로들어 어려운입장을 이야기했으나 2차대전후 독일 폴란드 미국들 사이에 교과서문제로 분규가 났을때 개방적이고 우호적인 태도로 잘 해결지었다』고 전제, 『일본이 그것을 못한다면 일본인이 그만큼 과거에집착해있고 비좁은 감정을 버리지 못했다는 증거일수도있다』고 지적했다.

日、유엔平和軍 참가검토

스즈끼、케야르事務總長 만나

【東京24日=宋孝彬특파원】 일본의 스즈끼(鈴木)수상은 24일 訪日중인 케야르유엔사무총장과 만나 일본은 유엔평화유지군에 참가할것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스즈끼수상은 앞으로 일본은 재정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요원의 파견및 기자재공급을 통해 유엔의 평화유지기능강화에 적극협력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현재 일본의 헌법상 군대의파견은 불가능하나 헌법이 허용하는범위안에서 유엔에 적극협력하겠다고 케야르총장에게 다짐했다.

"經協때문「歪曲」양보않겠다"

질의 "韓日관계 전면 再檢討하라 中共과 差等시정때 대책은" 답변

國會외무위、日교과서 歪曲대응책 따져

국회는 24일하오 外務委를 열고 盧載源외무차관으로부터 日本역사교과서 歪曲문제에대한 日本의태도와 정부의 대응책에관해 보고를 들은뒤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任哲淳 金賢子 河舜鳳 李世基 李慶淑 李相鮮(이상民正) 李閔基 柳漢烈 許景九 申鎭洙(이상民韓) 李萬燮 林德圭(국민) 朴定洙의원(議政)등은 질의에서 『우리정부의 備忘錄이 전달되었는데도 아직 아무런반응이없고 스즈끼(鈴木)日本수상의 기자회견에서도 즉각是正할의사가 보이지않는데 만일 日本이 이번에수정하지않을경우 우리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가』고 묻고 『우리가 요구한 經協을 포기하고 外交斷絕을 가져오는한이 있더라도 정부는운명을걸고 日歪曲교과서의 즉각是正을 관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의원은 역사교과서 歪曲은일본이 軍國주의로 되돌아가려는 國策변화이며 경제大國에서 軍事大國으로 전환하여 세계평화를 위협하는처사라고 전제한뒤 日本의復古主義와 軍國主義의 부활에대해 과거 그들이 大東亞共榮圈추구로 피해를입었던 나라들과 공동기구를 만들어 對處할용의가 없느냐고 추궁했다.

의원들은 특히 청문회와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여 일본의歪曲에 종합對策을 마련하자고 제의하고 이번기회에 韓日관계를 근본적、전반적으로 재검토할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또 『아시아 太平洋지역의 다른 피해국들과도 侵略史공동편찬등 공동보조를맞춰 對處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하면서 日本의 역사위조사실을 모든修交國에 알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또 日本이 한국과 中共에대해 差等是正을 해올 경우 어떻게할것인가고 추궁하고 이번기회를 이용하여 中共과 대화를 모색해볼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의원들은 『인접국의 안정과 평화에 중요한 영향을미치는 그들의 자세에대한 주변국의 지적이 內政干涉이 될수없다』면서 『日本의 對韓歷史歪曲은 정신적 문화적 침략』이라고 주장했다.

盧차관은 답변을통해 스즈끼(鈴木)일본수상의 기자회견에언급, 『일본정부의최고책임자가 교과서왜곡을 시정하겠다는 자세와 기본방향을 표명한것으로 본다』고 정부입장을 밝히고 『그러나 아직시정의 시기나 구체적인방법등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일본정부가 내릴 최종결단을 銳意注視하면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이 앞으로 교과서 문제에있어 中共과 한국을 差等하는등의 非우호적인 조치를 취할것이라고는 생각지않으며 또 그렇게되지않도록 외교적인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과서歪曲시정과 經協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정부는 이같은관점에서외교노력을 벌이고 있다』며 『經協때문에 교과서왜곡시정을 희생치는 않겠다는 우리의각오와 자세는 분명히 되어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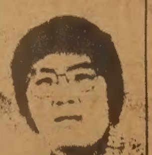
盧차관은 『일본의 軍國主義경향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일본정부가 이를 극구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것은 부적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地平線

불볕더위가 유난히도 기승을 부렸던 올여름은 피서인파의 열기도 역사상 처음이었다. 관계업계가 종합한것을 보면 부산을비롯한 동해안과 서해안등 전국의 해수욕장에 몰려들었던 인파만 연 3천만명을 넘을것이라 한다. 우리 인구의 대부분이 피서나들이를 하다시피한 셈이 된다. ▼60년대까지만 해도 해수욕같은 피서행각은 일부 특수층의 전유물 이었다. 그무렵 해수욕장이래야 부산지방이면 해운대와 송도해수욕장, 경인지구 해안에서는 인천의 송도, 동해로는 강릉 경포대같은 몇몇 곳밖에안되었다. 그나마 한산하기 그지 없어서 대자연의 정서를 조용히 만끽할수 있었고 피서객 서로의 인간적인 사귐도 가능했었다. ▼그러던것이 70년대 후반부터는 웬만한 해변가 사장이면 으레 해수욕장으로 개발되어 갔다. 원색 페인트칠을한 판자집이 그곳에 들어서 바가지 요금이 점차 판을치는 아귀다툼 속에서 콩나물시루인파의 뒤범벅이나 다름없게 됐다. 마치 명동의 잡답과 소음의 뒷전같은 형세여서 피서가 아니라 오히려 복더위를 가중하는 꼴임이 분명하다. ▼그 사이 경제적인 형편이 좀 나아지고 이런 피서붐에 따른 젊은층의 행동성향이 활달하여 적극성을 띠게된것은 반가운일이다. 하나 반면 무리를 이루어서 피서길에 오르면 굴레벗은 무엇처럼 자제력을 상실하는 일부의 경향이 한때 자주 눈에 띄었었다. 심한경우는 소란을 피우며 편싸움을 벌이는 불상사까지 꼬리를 이었다. ▼그랬던 무렵에 비기면 피서객은 사상유례가 없고 일부 바가지요금의 횡포와 다소의 탈선이 있었다고는하나 올해의 분위기는 건전화하는 추세를 뚜렷이 보였다. 대체로 가족끼리 천막을치고 밑반찬까지 장만해가는 알뜰피서와 절제풍조속에 평온한 질서는 잡혀갔다」 이는 우리 사회가 차츰 시민의식에 눈뜨고 공중도덕에 적응되어 가는 증좌라 할수 있다. ▼절제속에서도 적지않은 돈이 쓰여졌을것은 틀림 없다. 줄잡아 피서객 한사람이 1만원을썼다고 가정한다면 그 돈은 3천억원의 거금이 된다. 이것은 다목적 댐 하나를 마련하기에 족한 액수이다. 생의 영위가 합리적 타산에만 치우칠 수는 없고 레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는 하나 생각하면 엄청난 소비다. 또 그런 소비가 남들이 가니까 따라나선 피서에서 분에 넘치게 쓴 돈과 시간낭비는 아니었는지 돌이켜봐야 할 처지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23일 이미 지난 처서를 고비로 날씨는 서늘해져 가을의 기색이 완연하다. 제각기 피서의 흥청거림과 그로 말미암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일에 전념하여 「興盡悲來」의 쓴맛을 남기지 말도록 해야 할때다.

구독신청은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경 축

이어지는 양국의 상호방문 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사이로 좁혀지는
계기가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를 향한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 확산에 각하의
노고가 헛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 입니다.

평화통일 정책자문회의 캐나다지역 협의회

시간늦춰가며 頂上회담연장

한국 최고富者왔으니 잘 얘기하시요

예고없이 合作백화점 들러 商品살펴

全대통령 旅路스케치 가봉

寫眞기자에 포즈

○…韓·가봉정상회담이 있은 23일하오6시45분(한국시간) 全斗煥대통령은 대통령경호실군악대의주악이연주되는가운데대통령궁에 도착, 가봉의전장의 안내로 경호실의장대의 열병을받은뒤 2층에 올라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봉고대통령의 영접을 받았다.

양국원수는 단독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진기자들을위해 약3분동안 포즈를 취하며 인사말을 주고 받았다.

먼저 봉고대통령이 『어제밤 잘 쉬셨읍니까』 고인사를 하자 全대통령은 『이번 아프리카순방기간중 가장 잘 쉬었는데 아마 時差에 대한 적응이 된것같습니다』고 답변.

이어 全대통령이 『어제저녁 만찬때 민속공연을흥미롭게 보았다』고 말하자 봉고대통령은 『각하를 모시기위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부족한것이 있는것같아 죄송하다』고 인사.

양국대통령은 봉고대통령의 서재에서 약1시간30분동안 단독회담을 마치고 1층 대접견실에내려가 대기중인 관계장관들과 함께 확대회의를 약45분동안 주재했다.

이날 회담은 당초 1시간50분동안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15분이 연장되어 2시간15분동안 진행됐다.

企業人협조 希望

○…확대회의벽두 봉고대통령은 양국 단독정상회담을 10여분에걸쳐 자세히 설명했고 이어 메디앙수상이 경제각료회담내용을, 마르탱·봉고외상이 외무장관회담내용을 각각 소상히 보고.

全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이번 가봉체재동안 봉고대통령을 비롯한 가봉국민 여러분이 환대해주고 세심한 배려를 해준데대해 감사를 드린다』고 인사말을 꺼낸뒤 『봉고대통령은 7년전 訪韓한바있어 어느나라보다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따라서 양국은 어느나라보다 깊은 우의와 유대가 강화되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국제정세를비롯, 경제협력문제등 공동관심사를 진지하게 논의했다』고 밝힌뒤 『정상회담에서 논의된것들이 모두실효성있게 빠른 시일안에추진되기를 희망하며 가봉으로서는 가급적이면 빠른시일안에 투자환경조성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

全대통령은 이어 『결국 양국기업인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야할것이며 정부는 많은 기업인들이 가봉의 개발사업에 참여토록 측면에서 정책적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經濟 소상히설명

○…全대통령은 이날 낮 韓·가봉정상회담등 바쁜 공식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내 이번 아프리카순방에 수행중인 경제인들과 在가봉경제인들을 영빈관으로 초치, 오찬을 함께하며 이들을 격려하고환담.

全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오전에 있었던 韓·가봉정상회담내용중 경제부분에 대해 자세히 경제인들에게 설명했다.

全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경제인 여러분을 모시고 온것이 나한테는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고 『나는 방문국정상들한테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은 부자와함께 왔으니 그분들하고 잘 교섭하면 경제협력이 잘될 것이다. 한국은 민간주도형 경제체제이기 때문에 정부 마음대로 안되며 모든것이 그 분들에 달렸다고 말했다』고 정상회담에서 말한내용을 소개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現地종업원 격려

○…이날 예정에없이 維新(레노바용) 백화점을약 10분동안 시찰한 全대통령은 현지법인대표인 말부카씨의 영접을 받으며 백화점에 도착, 片永範영업부장의 안내로 전기기구, 화장용품, 생필품, 운동구점등을 차례로 둘러봤다.

全대통령이 『어떤 상품들이 잘 나가느냐』『건물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며 자세히묻자 片부장은 『전기제품이 잘나간다』고 설명했다.

全대통령은 매장을 시찰한뒤 백화점에 근무하고있는 한국인종업원과 현지인종업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

樂隊長 해임조치

○…韓·가봉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양국외무장관회담에서 가봉측은 22일상오 全斗煥대통령의 가봉도착 공항환영행사에서 國歌가 잘못 연주된 사태와 관련, 공식 謝過文書를 李範錫외무장관에게 전달하면서 유감의 뜻을 거듭표명.

마르탱봉고외상은 이번 사태경위를 현재 계속조사중에 있으며 우선 일차적인 책임을 물어 당시 공항에서 군악대를 지휘한헌병군악대장을 解任 시켰다고 조치내용을 李장관에게 통고했다.

外交사절과 歡談

○…全대통령은 23일 하오(현지시간) 영빈관대접견실에서 駐리브레빌외국공관장내외를 접견, 환담했다.

全대통령은 영부인 李順子여사와 함께 대접견실에 도착, 리셉션라인에 李範錫·마르탱 봉고양국외상과 나란히서서 가봉외무성의전장의 소개로 각국공館長내외를 접견한뒤 참석자들에게술을권하며환담.

全대통령은 『바쁜 가운데 틈을 내주어 이렇게 만날수 있어서 반갑다』 고 인사한뒤 『이런 식으로 일일이 가지않고 한꺼번에 여러분을 만날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좋다』 고농담을해 웃음이 터져나왔다.

僑民들에 册선물

○…대통령영부인 李順子여사는 23일하오(현지시간) 영빈관 회의실에서 僑民부인대표 20명과 자녀들의 교육문제, 교민들의 생활실태등에 관해 1시간10분동안 정담을 나누었다.

李여사는 교민부인들에게 서울에서 준비해간 유아교육을위한 그림책 「소년소녀」·「한국사 이야기」등을 선물로 주면서 가봉에서의 생활이 더욱 발전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

【리브레빌=尹國炳특파원】

◇全斗煥 대통령이 23일하오 리브레빌중심가에 있는 유신백화점에 들러 태권도服을 비롯한 갖가지 한국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리브레빌(가봉)23日聯合=聯合】

韓·가봉 共同聲明

要旨

▲가봉공화국 방문기간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가봉 대통령과 함께 현재의 중요 국제정치및 경제문제와 특히 동남아시아및 남아프리카 문제를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양국간의 쌍무협력과 공동관심사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토의하였다.

▲全대통령은 韓半島정세와 관련, 한국의 평화적통일을 목표로하여 韓半島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하여 한국정부가 기울인 제반노력을 가봉대통령에게 설명하였다. 특히 全대통령은 한국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위한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은 南北韓 최고당국자간의 직접대화를 실현하는것임을 강조하였다. 全대통령은 또한 한국의 평화통일시까지 잠정조치로써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가입하는것이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민족화합을 촉진하는국제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對話추창자인 가봉공화국 대통령은 全대통령에게가봉정부는 평화적 방법으로한반도 통일을 실현키 위한 모든주도적 노력을 계속 성원하고 지지할것이며, 국제연합·비동맹 운동및 여타국제회의에서도 그러한 입장을취할것임을 약속했다. 또한 가봉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특히 가봉이 한국민의 의사에 따라 南北韓의 유엔 가입에 관한 한국국민의 노력을 적극지지 환영한다고 강조하였다. 全대통령은 가봉 정부가 유엔과 비동맹회의및 여타 국제회의에서 한국의 정당한 입장에 관하여 이해와지지를 표명하여준데 대하여 謝意를 표명하였다.

▲양국원수는 아프리카 정세를 검토하고, 프레토리아 정부의 앙골라에 대한 계속적인 침략행위를 규탄하였다. 양국원수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양국정부의 공통된 정책을 재확인하고, 남아프리카 문제에 대한 정당하고 영구적인해결책을 강구하고, 금년말 이전에 나미비아 독립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유엔이 전개하고있는 노력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국대통령은 천연자원 개발과 기술발전및 양국간의 기술이전을 위하여 합작사업을 장려하고 쌍무적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런관점에서 양국대통령은 한국전력공사가 참여하고있는 광물탐사작업 (무나나우라늄광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에 만족하였다.

▲양국대통령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의 민간부문간의협력을 더욱 촉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양국원수는 1975년 체결되고 1980년에 발효된 3개협정 즉 경제·기술·문화및 과학협력에 관한협정, 韓·가봉공동위원회의설치에관한 협정및 무역협정이 양국협력관계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국대통령은 韓·가봉공동위원회의 조속한개최가 양국간 협력관계강화를위해 바람직하며, 항공협정·해운협정및 투자보호협정의체결이 양국간의 통상관계를 활성화하고 또한 강화할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국 국가원수는 全斗煥대통령각하의 가봉방문및 여타 아프리카국가순방이 대한민국과 가봉양국간에는 물론이고 아세아·아프리카간의 우호및 협력의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만족스럽게 확인하였다.

양국대통령은 앞으로도 상호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메아리

택시悪

법은 지켜야하는 것이니까, 법대로 하자는 말을 나무랄수는 없다. 요즘 서울시가 서슬푸르게 내놓은 택시의 합승행위 금지령이 그런경우다. 하지만 그 호령의 법적근거는 따져두는게 좋다.

교통부령 제742호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등의 처분에관한 규칙」이란 긴 이름이다.

그 제3조2항의 別表② 33호에 「승차정원 6인이하의 자동차로 합승행위를한때」가 들어있다. 처분내용은 운행정지 10일. 이 조항의 근거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운수업자는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공공의 복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못한다는 조문이다.

좀 딱딱한 얘기라 안됐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도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란 別表가 있다. 그 30호 ㈚에 있는것이 「합승강요행위」, 범칙금은 3만원이다. 이 조항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운전사의 준수사항」중의 제9항, 서울시장등이「지정한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합승행위가 불법이라함은 교통부장관이나 서울시장등의 지시 또는 지정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통정책에 달린 일이다. 그리고 택시 운전기사만큼은, 합승을「강요」하지 않는 한, 처벌대상이되지 않는다.

여하간 대통령령과 부령이 그러하니, 택시합승은 불법행위다.

그러나 문제는 남는다. 그 금지령이 교통정책에 합당한지, 또 시행이 가능한지의 의문이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합승행위 금지는 都給制운전사의 벌이를 뺏는다. 그들의 勤務日 하루 수입(社納金을 내고 남은돈)을 1만5천원이라고 할때, 그 65~85%가 합승수입이란 조사가 나와있다. 이만한 벌이를 희생하며 법을 지키라고 해서, 그대로 지켜질 까닭은 없다.

서울시는 그 대책으로 社納金을 줄이도록 택시업자에게 종용하리라고한다.

그러나 社納金은 勞使協約으로 정해진것인데, 그 協約기간중에 서울시가 이래라 저래라할 권한이 있을까. 더구나 社納金을 전제로 한 都給制의 勞使協約자체가 불법이란 의문마저 없지 않은터에…。

·운수행정을 말하자면, 이처럼 「불법」이란 말이 잦다. 버스가 안내양의「오라잇」으로 구르듯, 택시는 「불법」으로 구른다고 해야할 현실이 있기때문이다.

그실정을 보기위해, 딱딱하긴 하지만, 법조문을 더 인용한다.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여하한 방법을 불문하고 그名義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을 타인에게 경영하게 하지 못한다』

도로운수사업법제26조의 이조문은 持入制를 금지한 것이라 해석되지만, 운전기사에게 經營損益의 부담을 지우는 택시都給制가 이 조문을 정면으로 위배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이조문은 징역1년, 벌금3백만원의 벌칙이 딸린 강제규정이다. 이 조문을 지키는 길은 社納金을 전제로 하지 않은 고정월급제를 시행하는 것뿐인데, 76년에 이미 교통부가 이를 지시했다가 흐지부지했고, 지난번 민정당의 공약에도 이것이 들어있으나 그 실시는 不知何歲月이다.

이 택시都給制가 바로 「택시悪」의 근원이다. 그로해서 합승행위가 불가피하고, 社納金을 대자니, 과로운전을 않을수가 없다. 都給制를 그냥둔채 합승행위를 금지한다면, 운전기사가 糊口하는 길은 과로와 과속을 무릅쓰고, 운행시간·운행거리를 늘리는 것뿐이다.

이럴 때의 위험을 알기에, 도로교통법제40조는 「과로운전 금지」를 고용자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 역시 징역6월, 30만원이하의 벌칙이 딸린 조문이다. 지금형편이 이 조문을 법대로 지키지 못하는판에, 합승행위금지로 그 불법성이 더해진다는 얘기다.

이처럼 택시는 지금 「불법」을 바퀴삼아 구른다. 都給制, 과로운전, 합승등의 불법행위가 그 세바퀴요, 나머지 한바퀴가 定見없는 운수행정이다.

이 네바퀴를 모조리, 선후를 가려 갈아끼지 않는한 택시는 제대로 구르지않는다. 그중 가장 시급하게 갈아낄 것이 법을 지키자며 법을 외면하는 「행정의머리」, 그다음이 都給制다.

손쉬울듯하다고, 합승행위 한바퀴만을 먼저 손보겠다는 생각은 매우 어리석다. 그나마의 택시가 전복될 위험이 있고, 실속없는 「網民」에 그칠 염려가 없지않기 때문이다.

金昌悅 <編輯委員>

세기의「不請客」…다시 더부살이길로

PLO의 내일 <中>

國際여론 同情 업고 分散이「團結」더촉진

「영토없는 국가」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가 또 더부살이에 나섰다。이번에 더부살이를 할나라는 튀니지 이라크 南예멘 北예멘 알제리 시리아、요르단 수단등 8개국이다。철수협상 초기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등도 철수지로 거론 되었으나 마지막과정에서 빠졌다。

이스라엘은 협상초기부터 PLO철수지가 이스라엘과 국경을접하지않는지역이어야 한다고 고집했으나 결국은양보했다。PLO는 1만5천 여명의 철수병력중 대부분을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있는국가로 철수시키는데 성공했다。

아라파트가 이끄는 상징적인 PLO지도부는 바다건너 튀니지에 설치될것이지만 주력부대는 주로 시리아에 남을것으로 보인다。

PLO철수가 시작되자 마자 기다렸다는듯이 레바논에는 親이스라엘系 대통령이등장했고 이스라엘과 시리아간에 새로운 戰雲이감돌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측은 레바논에 투입한 주력부대를 시리아수도 다마스커스가 사정거리안에 들어오는 베카계곡으로 이동시키기 시작했다。

PLO철수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끄는格일뿐 중동에서의 불길을 완전히 잡은것은 아니다。

샤론 이스라엘국방상은 만약 다마스커스가 PLO의 새로운 은거지가될경우 베카계곡에서 다마스커스를 포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레바논 우익기독교 민병대 사령관 바시르·게마엘이 신임 레바논대통령에 당선되자 회교도가 즉각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게마엘은 레바논을 유린한 이스라엘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인물이다。

지금까지 레바논 대통령은 모든 종교종파가 수락할 인물을 선출하는게 관례였으나 이번은 예외였다。

자칫하면 레바논이 또다시 기독교와 회교도간의 內戰에 휩싸일 여지가 많다。

PLO를 받아들이는 여덟 나라의 국내사정도 퍽 복잡하다。

이라크와 수단은 현재 전쟁을 치르고있는 나라이다。요르단은 지난 70년 PLO를 무력으로 탄압해서 레바논으로 쫓아낸바 있다。반면 이집트는 캠프데이비드 협정 체결당시 PLO를 팔아먹었다고 비난을 받았을 정도로 사이가 좋지않아 PLO를맞아들이지 않고있다。

PLO수용국들은 PLO가 중앙정부의 권한을무시하고 「국가안의 국가」로 행세할것을 두려워 하고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PLO철수지에서 제외된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PLO는 西베이루트에 갇혀있을때 아랍형제국가들의 救援을 애타게기다렸으나 어느나라도 직접지원해 주지않았다。

PLO가 西베이루트를 떠나면서 저주한대상은 이스라엘과함께 아랍형제국가였다。

PLO수용국들은 자기나라에 도착한 PLO軍들을 국가원수가 직접 마중나가는등 표면상으로는 환영하고 있지만 내심은 이들을귀찮아 하고있다。

자기나라가 PLO본거지가되면 이스라엘이 레바논경우처럼 보복을해올것이고 PLO세력의 증대는 중앙정부의 약화를 가져올것이기때문이다。PLO수용중政情이비교적 안정된 나라는 튀니지뿐이다。

아라파트가 튀니지로 가는것도 튀니지가 政情이 안정돼있기 때문인것으로보인다。

PLO는 파벌별로 뿔뿔히 흩어짐으로써 아라파트를 정점으로한 求心點을 잃어버렸다。아라파트가 이끄는알·파타단체는 PLO중에서도 가장 온건한 단체이다。

PLO의 지도부가 흔들릴경우 PLO는 투쟁방식을 온건한 외교노선에서 과격한 테러수법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더이상 잃을게없는 입장이 돼버릴것이기때문이다。

지난 70년 PLO가 요르단에서 2만명이 살해되고 레바논에 추방되는등 최대의 위기에 처했을때 테러가 최고도에 달했었다。

이스라엘은 PLO를 레바논에서 철수시킴으로써 군사적승리를 일단 얻어냈고 눈의가시를 제거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군사적 승리가 정치적승리까지를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10주 이상에걸친 이스라엘의 무자비한 PLO소탕은국제여론의 악화를 가져왔고곳곳에 反유태주의를 태동시켰다。이스라엘공군의무차별공습을받은 베이루트孤兒와 부녀자들의 사진이 연일 전세계신문에 실리고 세계의 여론은 팔레스타인의 悲劇을통정했다。

이번 레바논사태를 계기로 중동평화의 관건이 팔레스타인의 自決權및 국가창설권을 인정하는데 있음이 재삼 강조되었다。

이스라엘의 입장을 계속옹호해온 미국마저 캠프데이비드協定의 테두리안에서 팔레스타인 자치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천명했다。

PLO의 8개국분산은 아랍국가에 흩어져있는 4~5백만에 달하는 팔레스타인人들의 단결을 촉진시킬수도있다。팔레스타인독립운동이 PLO의 분산으로 아랍전역으로 확산될수도 있을것이다。

팔레스타인人은 PLO의 무장해제로 독립운동의 유효한 수단을 잃어버리긴했으나 독립을 향한 紐帶感을 한층 더 강화했다。

팔레스타인人은 48년 이스라엘에 의해 고향에서 쫓겨난 이래 숱한 역경을 극복하면서 끈질기게 살아남는생명력을 과시해 왔다。

PLO의 베이루트철수로 팔레스타인의 독립운동이 최대위기를 맞고있는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1만5천여명의 戰士가 흩어진다고해서 4~5백만의 전체팔레스타인人이그대로 주저앉지는 않을것같다。

PLO는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주도해온 하나의 단체였지 바로 팔레스타인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이다。

【李炳圭기자】

報復겁내 아랍圈도冷待

國家창설만이 해결의 열쇠

◇베이루트를 떠나 23일 튀니지로 향하는 한 地中海정기선에 승선한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깃발을 흔들며 승리의 표시를 해보이고있다。【리마솔 (키프로스) 23日AP聯合=聯合】

海外토픽

人口5~15억死亡

★美·蘇양국간核戰하면

미국과 소련양 초강대국간에 핵전쟁이 벌어질 경우 지구상의 약5~15억 인구가 사망할 것이라고 東西양진영의 核물리학자들이 23일 한 과학세미나에서 추정했다。

핵전쟁의 가공한 결과에관한 이세미나에서 美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로웰·우드교수는 이핵전쟁으로 소련이 전체인구의 15~45%를 상실하게 될것이며 소련보다 민방위체제가 빈약한 미국은 전인구의 50~90%를 잃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우드교수는 또 核戰에 직접개입하지 않은 『非戰鬪國』들도 막심한 피해를 입어 유럽에서 20~70%의 인구가 사망할것이며 일본에서는 20~30%, 중공에서는 20~80%가 각각 사망하게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우드교수는 이어 이같은 美·蘇核전쟁으로 인류는 지난 14세기때 전염병으로 인구의 3분의1을 상실했던 경험을 또다시 겪게될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美國의 리처드·다원교수는 核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도 거의 대부분 장님이 되거나 불치의 병을얻어 말할수없는 고난을 겪게될것이라고 말했다。

【에리체 (시칠리아) =AFP】

다이어먼드 무늬 방울뱀

다이어먼드 무늬가 박힌 방울뱀 두마리가 벌목노동자인 스티븐·리벤버그씨 (32) 와 그의 애인 파멜라·마이니니양 (24) 의어깨를 타며 놀고있다。 리벤버그씨는 9년동안 방울뱀을 「수집」하면서 5번이나 물리기도 했었다。【벤토콘드 (캘리포니아주) AP聯合=聯合】

17세기 寶物船탐지

★아이슬란드近海 곧발굴

수십톤의 金과 다이어먼드를 가득실은 보물선이 어쩌면 수주일내에 아이슬란드남부해안지역의 얼어붙은 모래땅밑에서 발굴될지도모른다。

문제의 보물선은 1667년 동인도를 출발, 암스테르담으로 가던 9척의 화란상선중의 하나로 아이슬란드근해에서 폭풍을만나 침몰했다는것。

침몰한 배에는 43톤의 金과 4톤의 다이어먼드가 실려있는 것으로 전해져왔는데 이에따라 23년전 2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보물선발굴협회가 조직돼 그동안 빙하로 인해 광활한 모래퇴적층으로변한 침몰추정지역에서 탐사작업을 벌인결과 최근 얼어붙은 모래땅의 15m아래에묻혀있는 보물선의 위치를 찾아냈다。

【레이캬비크=AFP】

학생모집

82학년도 제2학기 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

1. 모집학과 : 신과
1. 자 격 : 고졸이상으로 세례교인에 한하며 비세례자는 졸업전까지 세례를 받아야함.
1. 수 업 료 : $60
1. 수업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12주간)
1. 수업장소 : 252 BLOOR ST. W. (지하철을 이용하실때는 ST.GEORGE에서 내리시면됨)
1. 개강일시 : 1982년9월11일 오전9시
1. 원서교부및 교부처 : 1982년8월1일부터 9월4일 LEE'S PRINTING (2157A WESTON RD) 전화 : 244－2301
1. 기타문의 : 233－2266 · 244－2301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캐나다노회
직영 칼빈신학교장 계화삼

토론토 한인 성서 신학원

1982년도 2학기 개강안내및 신입생모집 공고

본학원은 평신도 훈련을 통한 교회지도자및 사회봉사자 양성과 또한 복음전파를 위한 선교대원을 양성하고 성서의 옳바른 이해를 통하여 사이비종교로 부터 기독교 진리 수호의 목적으로 1978년 개원, 3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83명의 재학생을 보유하고 있는 3년제 성서학원 입니다.

✣ 개강일시 : 9월2일(목) 오후7시
✣ 장 소 : 토론토한인장로교회
✣ 등 록 비 : 학기당 $65
✣ 수 강 일 : 매주 목요일 오후6시～10시
✣ 안내서배부 : 본학원의 목적, 약사, 교과과정, 시간표, 졸업재학생 명단, 이사회·동창회등 기록되어 인쇄된 안내서가 종교서관, 서울식당에 비취되어 있읍니다. 또한 전화로 요청하시면 우송하여 드립니다.
✣ 문의전화 : 535－6864

TORONTO KOREAN BIBLE INSTITUTE
1183 DAVENPORT RD. TORONTO. M6H 2G7
PRINCIPAL REV HEE—MIN PARK B.A. B.D. TH.M. D. MIN.

Royal Conservatory of Music

이주연 교수

과 목 : 성악
등 록 9월1일부터
문의처 : 275－1029

유회자 교수

과 목 : 파이프올간
피아노
이론교실
Rudiment 1
Rudiment 2
등 록 : 9월1일부터
문의처 : 960－0074

辯護士 대낮 被殺

事務室서…50代범인 現場서 검거

등산칼로 가슴등 찔려
말리다 함께당한 事務長 중태

24일낮12시께 서울中區巡和洞1의95 변호사 金琦鉉씨(74·서울道峰區彌阿洞450의60) 법률사무소에서 金씨에게 오래전부터 원한을품어온 李培鎭씨(50·경기華城郡台安面 安寧1里37)가 등산용칼로 金씨와 사무장 李炳九씨(43·서울永登浦區新吉洞360의20)를 차례로 마구 찔러 金씨는 숨지고 李씨는 중상을 입고 이웃 한일병원으로 옮겼다. 전과 9범인 李씨는 범행후 달아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가 신고를받고 출동한경찰에의해 현장에서 붙잡혀 살인혐의로 구속됐다. 범인 李씨는 경찰에서 金변호사가 水原지청장으로있던 지난 50년 당시 水原市 中洞47에 있던 자신의 아버지집을 역산(逆産)가옥(6·25때 부역한 사람의집)으로 몰수, 차지해버린뒤 보상을 해주지않아 보상을 이행해줄것을여러차례 요구하다가 범행을하게 됐다고 동기를밝혔다.

발생 국제칼텔 학원이 세든 건물의2층2D호 15평가량되는 사무실에는 李사무장과 여사무원 李美景양(19)이 오전근무를 하고있었다. 李양에 의하면 사무실정리를하고있는데 범인 李씨가들어와 사무장과 약15분간얘기를 나누다 낮12시께 변호사 金씨가 출근, 자리에앉자 부동산원인무효소송을 위한 증빙서류가 담긴 노란봉투를내 보였다는것.

이때 金씨가『30년전 사건을 제기해서 뭘하느냐』며『포기하라』고 말하자 범인은 金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뒤 봉투에서 등산용칼을 끼내 마구 찔렀다. 범인은 이를 말리던 사무장李씨의 왼쪽팔과 오른쪽어깨등 닥치는대로 찔렀다. 범인李씨가 휘두른칼에 가슴, 배등 5군데를 찔린 金씨는 방을 뛰쳐나와 이웃동화포장사무실소파에 피를흘리며 숨어있다가 경찰에 의해 한일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뒤였고 사무장李씨도 金변호사와 함께 옆방으로 피신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현장인 변호사 金씨의 사무실은 바닥에 피가 낭자했고 복도와 벽에도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한편 비명소리에 놀란 李양은 옆방인 동화포장서울사무소로 달려가 여직원 李基젰양(23)에게 신고를 부탁한뒤 자신도 인근파출소로 달려가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동기 경찰에서 범인 李씨는 변호사 金씨가 50년 당시 水原지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아버지 李계봉씨(49년사망)가 일본인 제과점종업원으로 있을때 3만원을주고 산 문제의 부동산을 李의 형이 6·25동란때 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역산으로 몰수했다고 주장했다.

李씨는 이같은사실을 지난72년에야알게돼 부동산을되찾게해주거나 취직자리를마련해줄것을요구하다 거절당했다. 李씨는 땅을 되찾기 위해 소유권이 바뀌게된경위를 알아보던중 문제의땅이 자신의 친척3명의 인우보증에 의해 넘어간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사촌매부 李鳳煥씨(水原市梅山洞2街73)등 3명을상대로 81년12월12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동행사, 사기등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한편 이사건을 심리한 水原지검 宋正完검사는 지난3월25일 사기부분은 무혐의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와 동행사부분은 공소권이 없다며 기각됐다.

李씨는 고검과 대검에 자신에게 유리한 증빙서류를보완, 재항고했었으나 지난7월20일 대검에서 무혐의로다시 기각당했다.

이에 격분한 李씨는 8월초순에만도 4번이나 金씨의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보상을 요구해왔다는것.

한편 범인 李씨는 지난72년11월께 보상을 요구하며 金씨가 살던 서울城北區下月谷洞집에 찾아가 유리창문을깨 경찰에 붙잡혔는데 金씨의영향력 행사로 살인미수혐의로기소, 징역7년을 선고받고 79년 출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李씨는 모든것을 포기한채 범행전날인 23일 하오6시께 南大門시장에서 6천원을 주고 등산용칼을 구입, 범행을 준비했다는것이다.

> "6·25때 형이附逆 아버지땅 沒收 여러차례 補償요구 거절해 殺害"
> 犯人주장

◇범인 李培鎭씨

"처음부터 죽일생각 없었다"

犯人과 一問一答

—범행당시 술을마셨는가.

▲金씨를 만나기전에 소주 1병을 마셨다.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했는가.

▲죽이려고 계획하지는 않았다. 어제 산칼도 겁만주고 보상을 받기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金씨를 만났을때 죽일생각까지는 안했었다는 말인가.

▲그렇다. 말다툼끝에 주먹으로 金씨를때리자 사무장과 金씨가 덤비는 바람에 칼을 휘두르게 됐다.

—金씨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가.

▲김씨때문에 우리집은 망했다. 남의 재산을 다 빼앗은 金씨가 보상도하지 않고 떳떳하게 살아간다는것은 말도 안된다.

◇피살된 변호사 金씨

두아들 判檢事로 법조집안
살해된 金씨 事件수임뜸해

변호사 金씨주변 변호사 金씨는 서울통합변호사회 회원으로 등록은 되어있으나 회관에 모습을 나타내는 일이 거의 없었고 해마다 있는 정기총회에도 최근에는 참석하는 일이 드물었다.

일요일이면 동료 李大植, 桂昌業 변호사등과 낚시를 다니곤 했으며 사건수임도 뜸한편으로 서울통합변호사회에 의하면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월2건정도의 사건을 맡아왔는데 월5건이상은 되어야 사무실유지가 가능하다.

이때문에 金씨는 법원뒤편 로얄빌딩에서 사무실을 내고 있다가 5년전 전사무실보다 장소가 나쁜 지금의 사무실로 이전했다.

서울道峰區彌阿洞450의60자택에서 가정부도없이 부인(54)과 단둘이서 살고있다.

슬하에는 2남1녀가 있는데 두아들은 모두 고시를 거쳐 판·검사가된 법조가족. 金변호사의 큰아들(47)은 S大법대를 졸업, 67년 사시8회에 합격, 현재 서울고법판사로있고 둘째아들도 서울S법대를 졸업, 63년 고시16회에 합격, 서울지검 검사등을 역임하다가 지난76년 병사했다.

金씨의집은 대지60평에 건평40평짜리 단층양옥으로 지하실은 세줬다.

金씨는 지난45년10월 특임으로 水原지원 판사로 임관한뒤 47년~60년까지 大田지검검사, 水原지청장, 仁川지청장, 大田지검차장, 서울고검 검사등을 지냈고 60년 심계원심계관, 63년 감사원감사위원을 거쳐 64년 서울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

한편 金씨의 장남은 이날 하오1시께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끝내고 사무실에 돌아왔다가 전화연락을받고 사고소식을 알았다. 동료 판사들은 『법조계 전체에 충격을준 사건이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金潔鉉회장은 『사건의 동기가 아직 정확히 파악안돼 뭐라고 말할수는없으나 놀랍고 유감스러운일이다. 사건의진상을 대한변협의 입장에서 조사하는대로 변협의 입장을 밝히겠다』고말하고『변호사金씨는 성격이 원만하고 물욕이없는분으로 수년전 검사였던 차남이병사한후 사건을 별로맡지않고 우울하게 보내다 참변을당했다』고 안타까와했다.

서울통합변호사회 黃石淵부회장도 『金씨는 관록있고 원만한 분이었다』고 돌이키고 『변호사는 싸움의 대리인으로 항상신변의 위협을받는 일이 종종있으나 원한으로인한 살인까지 빚을줄은 상상조차 못할일이다』고 말했다.

犯人은 강도등 전과9犯

범인주변 水原市八達路3街에서 상업을하는 집안의 7형제중 3남으로 49년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가재혼하자 가출, 부산에서 H고등학교를 다녔으나 잦은 폭행사건으로 2학년때 퇴학당했다.

李씨는 56년입대했다가 군무이탈이 잦아 62년 불명예제대했다.

제대후 李씨는 일정한 직업도 없이 공사판과 공장을 전전하며 지냈다.

李씨는 살인미수강도 특수절도 사기횡령등 전과9범으로 통산12년간 옥살이를 하기도했다.

경기 華城에 부인과딸셋이 살고있으며 그동안『싯가 3억원에 이른다』는 땅을되찾기위해 서울을 오르내리는등 직업없이 떠돌아다녀 6백여만원의 빚을 지고있다는것.

문제의 부동산 범인李씨는 재항고이유서에서 문제의 水原市中東땅은 아버지 李계봉씨의 소유였다고 주장했다.

지난49년 아버지 李씨가 병사하자 어머니는 1백18평의 대지가운데 19평을 현재의 水原市中洞63 허염씨에게 쪼개 팔았는데 그후 金씨가 형이 6·25당시 부역을했다며 역산의 집으로 압류했다는것.

이집을 몰수한 金씨는 안채사저로, 바깥에는 청년단 사무실간판을걸고 살아오다 양재호씨에게 물려주었는데 양씨의 안들이 사업에실패, 이땅을 팔려고 하던중 돌연 李치훈씨의 자녀들이 水原市 토지대장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 1968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양씨가 승소했다는 주장.

그러나 李치훈씨의 딸 李복순씨는 이에 불복, 상고를 하려하자 양씨의 두아들은 李복순씨에게 1백80만원을 주는등 돈을주고 상고를 포기하도록해 등기대장에 양현석씨 소유로 기록됐다는것.

李씨는 또 지난28년 당시 이집에살았던 임수남씨가 서울東大門區中和洞에 살고있는데 안모씨를통해 일본인 소전철태랑씨에게 팔았으며 아버지 李씨가 매입했다는증거서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水原=金宗來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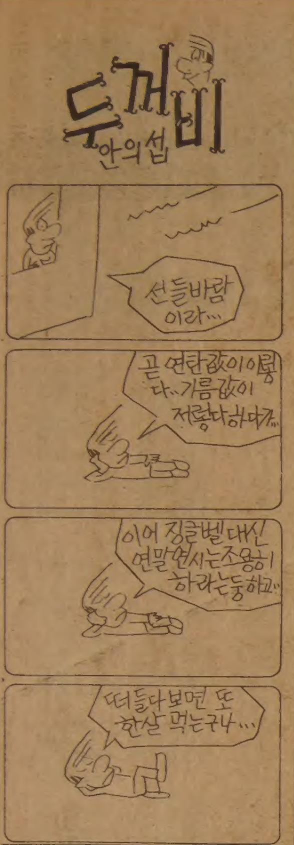
水原 李씨집 경기華城郡台安面安寧1里37 李培鎭씨집에는 부인과 3녀(11)등 가족들이 사건을 모른채 변호사 金씨와 담판하러간 李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인에 의하면 安養교도소에서 출감한 李씨는 그후 金씨집에 찾아다니는것을 포기하고 법적투쟁을위해 해당관청등을다니며 증빙서류를 찾는데 열중해왔다는것.

지난3월 李씨가 당시관계자들과 자신이 옥살이를하던 지난77년 金씨와짜고 李씨가문의 이름을 빌려준 사촌매부등을 상대로 水原경찰서에고소장을내자 金씨는 鳥山에사는 친지를 내세워 합의할것을 종용했다는것.

지난20일 金씨와 대면한자리에서 李씨가 4천만원을달라고 요구하자 변호사金씨가 거절, 2천5백만원에 합의를 봐 25일 지급키로했었다고말했다.

문제의 땅에는 崔賣元산부인과병원이 들어서 있다.



의사腦炎 死亡率 높다

全北 지난해 숨진 4명중 「眞性」은 1명뿐

頭痛·高熱등 합병증에 治療마저 소홀

【全州】진성뇌염환자보다 의사뇌염환자의 사망률이 더높은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도에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발생한 뇌염증세환자수는 진성 14명, 의사뇌염52명등 모두66명으로 이가운데 4명이 숨졌는데 진성뇌염환자는 1명뿐이고 나머지 3명이 의사뇌염 환자였다는것.

또 지난 80년도 총54명의 환자중 진성환자14명은 모두 완쾌됐으나 의사뇌염환자 1명은 숨진것으로 밝혀졌다.

도보건관계자는 이같이 의사뇌염환자의 사망률이 높은것은 이증세의 환자대부분이 두통과 고열등으로 합병증을 유발하고 있는데다 각가정에서조차 대수롭지않은 병으로 판단, 치료를 소홀히 하기때문이라고 밝혔다.

慶州~서울·大邱間 원인불명 電話불통

【慶州】24일상오 7시50분부터 경북慶州시에서 서울과 大邱와의 DDD를 비롯한 시외전화가 모두 불통이다.

통신공사慶州사업소에따르면 慶州—서울간의 50회선과 慶州—大邱간의 75회선이 이날상오 7시50분부터 갑자기 불통되어 조사에 나섰으나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는것.

이때문에 慶州市를 찾아온 많은 국내외관광객들이 큰불편을 겪고있다. 【聯合】

埋沒광부 2명구조

함태炭鑛 1명은숨진채 발견

【太白】속보=지난22일새벽 3시30분께 강원太白市 함태광업소 고목갱내에서 채탄작업중 탄이 무너져 내려 갱내에 갇혔던 광부3명 가운데 최준도씨(40·선산부)와 이재훈씨(41·선산부)가 사고발생47시간40분만인 24일새벽3시10분께 극적으로 구조됐다.

함께갇혀있던정삼환씨(29·선산부)는 숨진채로 발굴됐다.

매몰사고가 나자 광업소측은 광부등 30명으로 구조반을 편성, 별도의 갱도를 뚫으며 접근, 23일하오4시께 광부들이 매몰돼있는 지점으로부터 4m거리까지 접근, 광부들이 살아있음을 확인했었다. 【聯合】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B536-1692
H245-3539

가짜教師등 둘수狀

同名異人 자격증盜用

【高敞】전북高敞경찰서는24일 성명이 같은 다른사람의 대학졸업증명서와 교사자격증을 도용, 교직생활을하다 퇴직한 전高敞여중 수학교사李盛栢씨(39·전남光州市北區斗岩洞164)를 사문서 위조및 동행사·공문서위조등 혐의로 구속하고 李씨가 퇴직연금을 청구할수있도록 인감증명을 허위로 발급해준 光州市北區廳세무과 姜鍾晩씨(29)를 공문서 위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학중퇴인 李씨는 지난74년3월초순 光州J大 문리대를 졸업한 또다른 李盛栢씨의 졸업증명서 및 중등교사 자격증등 관계서류와 전남 靈光郡해룡중학교재직증명서등을 위조, 高敞여중교사로 7년동안 재직했고 李씨와 사돈간인 姜씨는 80년10월중순께 李씨의 청탁을 받고 퇴직연금청구서류에 필요한 허위인감증명 2통을발급해준 혐의다. 【聯合】

방학이용 課外실시 校長등 징계指示

서울시교위는 24일 泳薰고등학교 大韓根교장과 金權洙교감, 3학년 주임교사 金相俊씨등 4명을 징계처분하도록 재단측에 지시했다.

시교위에 의하면 이학교는 여름방학기간중인 지난7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자율학습」이란 명목을 내세워 고3학년학생 5백여명을 등교시켜 국어 수학과목등 대입예상문제지를 나누어준뒤 교내방송을 통해 풀이를해주는등 변태과외수업을 했다는것이다.

이에따라 학교법인 과외금지조치가 내려진뒤 방학기간중 학교단위의 변태과외수업이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公務員채용 教授추천

내년부터 성품·國家觀등 5등급 평가

정부는 24일 내년부터 공무원채용시험에 학생의 人性이나 성품을 판단하는 능력, 지도력, 책임감, 인간관계, 국가관등 6개항목에걸쳐 秀·優·美·良·可등 5등급으로 평가하는 교수추천제를 도입, 朴贊鉉총무처장관명의로 전국대학 總學長앞으로보낸 협조公翰에 의하면 정부가 시행하는 모든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학재학시절의 생활기록을포함한 교수추천결과를 시험성적의 중요한 부분으로 반영키로 했다.

朴장관은 이公翰에서「교수추천결과는 공무원채용에 있어서 합격여부를 결정하게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밝히고「교수들이 학원내에서 학생한사람 한사람에대한 인격, 품성, 능력과 자질, 생활태도에 정확하고도 공정한 평가를 해주는 일은 수험생개개인의 진로를 결정하며 나아가 대학의권위와 교수의명예를 높이는 계기가 될것」이라고 말하고 국가시험 제도의 성패를가름하는 관건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교수의 추천을 반영하는 이 제도는 지난2월 문교부와 총무처가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높은利子 준다 1억여원 챙겨

【光州】光州경찰서는 24일 文英子씨(42·여·光州市西區楊林洞99의14)를 사기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文씨는 이불집을 경영해오다 장사가 안되자 지난1월 이마을 金小禮할머니(64)로부터 4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8백만원을 빌어쓴것을 비롯, 인근주민 46명으로부터 1억2천여만원의 사채를 쓴뒤 지난달말께 행방을 감춰버렸다는 것이다. 【聯合】

追越경쟁하다 事故내 버스運轉士 2명拘束

【釜山】釜山鎭경찰서는 24일 추월경쟁을하다 인근주민 승객등 21명에게 중경상을입힌 대진여객소속 부산5자2027호 시내버스운전사 오재풍씨(28·海雲臺區盤松2洞12)와 통소속 부산5자1739호 시내버스 운전사 정국진씨(38·釜山鎭區草邑洞421)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운전사들은 지난20일낮12시40분께 釜山鎭區草邑洞270도로에서 8백m를 나란히 달리며 추월경쟁을벌이던중 갑자기 차도로 뛰어든 어린이를 피하려다 버스끼리 부딪치면서 대진여객소속 버스가 길가의 상신사건물을 들이받아 점포안에있던 신우식씨(52)등 3명과 두버스에타고있던 승객 권근자씨(42·여·釜山鎭區田浦1洞147)등 18명에게 중경상을 입혔다는것. 【聯合】

대견스런 젊은이

巨額外貨주워 돌려준 고학생

"謝禮대신 저아이에게 한국말을"

祥明女師大 체육과3년 金美子양(22·사진)은 어렵게 대학을 다니는 고학생이다. 새학기가 다가올때마다 등록금때문에 큰 고통을 겪는다. 그러한 金양이 어느날 6백만원을 줍는다. 졸업할때까지 학비로 쓰고도 남을 금액이었다.

15일 상오11시께 金양은 2학기 등록금때문에 학자금융자신청을 하기위해 영동에서 시청앞까지 가는 시내버스를 탔다.

金양의 옆자리에 30대부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앉았다. 金양은 그 부인의 가방을받아 무릎에 놓고 잠깐 졸았다. 그사이 가방주인은 어디에선가 내려버리고 가방만 덩그러니 金양의 무릎위에 놓여있었다.

집에 돌아와 가방주인의 전화번호라도 있을까해서 가방을 열었다. 그순간 미화8천달러(6백만원)와 여권 4개, 미국영주권, 비행기표가 쏟아져나왔다.

다행히 가방주인 皇甫鍾和씨(34·미국 캘리포니아거주)의 전화번호도 있었다. 金양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皇甫씨는 연방울며『金양의 전화소리가 하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말했다.

이민6년만에 푼푼이모은 돈을갖고 귀국한 皇甫씨는 가방을 잃은후 여권과 영주권때문에 더 애를 태웠다고했다. 皇甫씨는 너무도 고마와 金양에게 사례금을 듬뿍 내밀었다. 그러나 金양은 끝내 이를사양했다.

며칠후 皇甫씨를 전송하기 위해 공항에 나왔다. 金양은 7살난 皇甫씨의 아이를 가리키며『아주머니, 저아이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녀는 그것이 자신에게 사례금을 주는것보다 더욱 값진 일임을 몇번이고 강조했다.

무용을 전공하는 金양은 이번 여름방학에도 등록금을 마련하기위해 영어카세트판매를 했으나 신통치않았다. 학자금 융자신청도 남에게밀려났다. 하지만 그녀는 남의돈을탐내지 않았다. 부정직한 돈으로「정직하게 살라」는 공부를 할수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었다. 金양의 미담을 전해들은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하자『돈을 주인에게 돌려준게 당연한 일이 아니냐』며『인터뷰를 하려면 남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는 것이니 사례비로 차비를 지불할수 있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그녀는 깜찍하고 당돌했다. 그러나 더할나위없이 귀엽고 대견스러운「젊은이」였다. 【李 기자】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B) (416)497 8900　채 준 선
(R) (416)633 7892　(David Chae)

도 매 업

○ 채소 ○ 과일 ○ 화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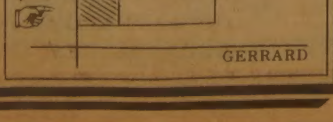
아직도 아침일찍 고생하십니까?

◈아직도 아침일찍 Food Terminal 에 가셔서 고생이십니까? 제 도매가격을 보면 누구나 놀라십니다.

◈여러분의 큰 성원에 더욱 자 신을 갖고 일을 하고 있사오니 직접 내방 Pick-up하시거나, 또는 주문해 주시면($150이상) 감사하겠읍니다.

〈취 급 품 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465—8167　대표 곽덕열



각종자개제품판매

한국에서 수입된 각종 자개제품 일부를 CNE에서 전시 판매 중이오니 관람 바랍니다. 교민들에게는 특별 할인 해 드리고 있읍니다.

본점 취급품목
각형 TABLE
병풍(4폭, 6폭)
화대 각종 화병,
화장대, 문갑,
패물함 기타
장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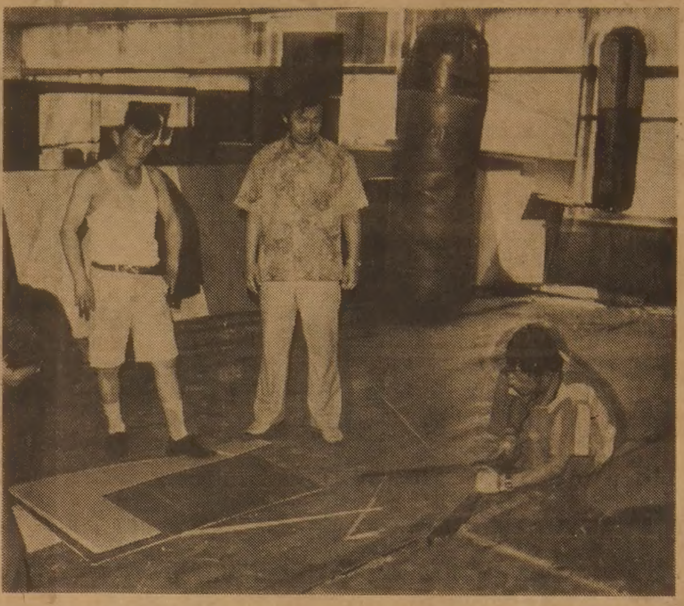
CNE 전시장 COLISEUM 내 EAST ANNEX
BOOTH 56 (나무조각 전시장앞)
YONG'S LINEN & GIFTS CO., LTD.
Port of East & Kang's Crafts) MAPLE
LEAF VILLAGE, NIAGARA FALLS, ONT.

☎: 593－7882(CNE)
(1) 356－9155(NIAGARA FALLS)

「金메달의 産室」 重山체육관 폐관위기
70여 아마복서 뛸곳이 없다

貰든 동대문市場건물 整理따라
40여坪 마루바닥 절반이나 잘려
17년간 高生根등 8명의 金메달리스트 배출

金메달의 산실, 70여 아마복서들의 터전은 사라져야하는가。프로복싱의 열기도 외면한채 17년간 꾸준히 아마복서를 키워오던 서울 重山체육관이 24일 두동강나 사실상 문을 닫았다。지난65년 昌信洞에서 출발했던 重山체육관은 72년 東大門區종합시장 B동 6층으로 옮겨오는날까지 수많은 아마복싱 우수선수들을 배출해왔다。



◇뜯기는 연습장바닥 두동강난 重山 체육관。24일하오 蔡用錫관장㊨과 韓水安코치㊥가 마루바닥이 뜯기는 모습을 침통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조국에 안긴 金메달만도 8개。그러나 종합시장 건물 정리작업으로 40여평 체육관 마루바닥이 반으로 잘려 링을 빼고나면 줄넘기도 할수없는 도장으로 변한것이다。사실상 쓸모없는 도장으로 변한것이다。

高生根 鄭永根 李石雲 韓昌德은 重山체육관이 배출해낸 국제대회 金메달 리스트들。高生根은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과 71년 제5회 아시아 복싱선수권 대회에서, 鄭永根은 70년 아시안게임, 71년 아시아 선수권에서 金메달을 차지했던 스타였다。

重山체육관이 폐관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10여일전부터 퍼지자 가난한수련생들은 연습할곳을 잃은채 갈곳을 몰라 불안한 모습이 었다。

국가대표팀감독을 맡고있는 蔡用錫관장(50)과 4년전부터 重山체육관사범으로 일해온 48년 런던올림픽 銅메달리스트 韓水安씨(58)는 24일하오 얼이빠진듯한 모습으로 정리작업을 지켜보고있었다。

『지난10년동안임대료없이 전기료와 관리비만내고 어렵게 체육관을 운영해왔읍니다。수련생들의 땀으로 절은 마루바닥이 뜯겨 나가다니…』

수련생들을 달래 돌려보내는 蔡관장과 韓코치의 눈은 붉게충혈돼 있었다。

『딴 장소로 옮겨서라도 重山을 재건했으면 싶지만 우리에게는 벅찬 희망이지요』

아들 韓昌德을 이 체육관에서 국가대표선수로 키워낸 韓水安씨。『내가 못딴 올림픽 金메달을 이곳에서 가꾸어보려 했는데…』 반바지 런닝셔츠차림으로 흩어진 집기들을 정리하면서 韓씨는 연신 한숨만 내쉬었다。【金仁奎기자】

縁故權 存廢싸고 농구계 떠들썩

농구협 改正案 "폐지하고 育成기금을 만들자"
여자 實業연맹 "制度살려두고 別途비용내게"

대한농구협회가 마련한 드래프트 개정안을놓고 농구계는 백가쟁명을 벌이고있다。

농구협회의 개정안은 중고팀 육성기금을 마련하고 스카우트과열경쟁을 배제하기 위해 연고권제를 폐지하고 선수선발비용을 내도록 하자는것이 골자다。이 문제를 심의하고있는 여자실업농구연맹은 농구협회 개정안 가운데서 연고권제만은 폐지할수 없다고 맞서고있다。

농구협회 개정안의 골자는 실업5개팀은 1천만원,금융팀은 5백만원씩 매년선수육성기금으로 갹출하고,선발기금을 많이낸팀에 드래프트 추첨순위에서 우선권을주고 선발비용을 육성기금으로 쓰도록 되어있다。

이에대해 여자실업연맹관계자들은 육성기금을 내자는 농구협회의 제안에는 동의하고있으나 선수 선발과 기금 갹출방법에서 의견이 엇갈리고있다。여자실업 농구연맹은 연고권제를 지속시키는것을전제로 연고를맺은 팀들이 육성기금이외에 별도의 선발비용을 내도록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또한연고를 맺은팀은 1차 선발에서 연고선수만을 뽑고, 2、3차 선발서는 연고를 맺지 않은 팀에 우선순위를 보하도록 결정을 보았다。그러나 이에대한 실시일을 83년으로하느냐, 84년으로 하느냐는 문제를놓고 현재 금융팀과 실업팀간의 의견이엇갈려 최종결정을 내리지 못하고있다。

국내농구계의 공통된 의견은 드래프트 시행방법이 어떻게 결정되든간에 조속히육성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집약되고 있다。현재 30여개의 여자중고팀을 육성하는데는 연간 1억5천~2억원의 기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농구협회 李東燦회장은 『드래프트 시행방법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하지 않겠다。다만 육성기금만은 조성되도록 실업연맹에서 결정해주어야만 된다』고 밝히고 농구협회가 먼저 육성기금을 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자 실업연맹이 여고팀육성에 책임을 져달라。그러면 농구협회가 방안이없는 남고팀 육성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優秀한1명에 쓰는 2~3億 장래성있는 여러명에 혜택을

해설 드래프트제도는 스카우트 과열경쟁을 막기위해 72년 농구협회가 마련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선수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여자 실업팀이 추첨순위에 따라 여고졸업선수를 선발하는 것이다。이제도는 선수들의 취업 자유를 박탈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선수들이 취업팀을 3팀씩 자유로이 고르도록 개정되었다。그러나 이 개정안 역시 선수선발에 혼란만을 초래、연고권제가 채택되었다。연고권제는 실업팀 한팀이 2、3학년생 1명에 한해 자유롭게 연고권을 맺어 뽑는 방식이다。

농구협회가 마련한새로운 개정안은 연고전제를 폐지하고 돈을 많이 낸팀에게 선수 선발우선권을주어、육성기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농구협회의드래프트개정안은 우수 선수한명에게2~3억원의 스카우트비용을 주느니 차라리 이돈을 육성기금으로 흡수하여 장래성있는선수들에게 육성금을 골고루나누어 주자는데 초점을 두고있다。【閔炳宅기자】

創設2년만에 세계水準 발돋움

오늘開幕 서울오픈卓球와 각국의 오픈大會

◇서울오픈 국제탁구대회 포스터。

強豪스웨덴·佛·日등참가 亞洲유일 國際대회
최고權威는 스칸디나비아오픈·오래된 大會는 全英과 全美
東歐·中共초청 명실상부한 世界대회가 과제

서울 오픈탁구가 본격적인 국제오픈대회로 자리를 굳혀가고있다。2회째를 맞은 대회에 43개국이 참가、대성황을 이룬 예는 찾아보기어렵다。참가국숫자뿐만 아니라 아시아강국인 한국·日本、유럽강호인 스웨덴·프랑스·西獨등이참가함으로써명실상부한 국제대회로 면모를 갖추었다。

서울 오픈의 자랑은 세계최고의 수준을 가졌으면서도 세계적대회를 갖지못했던 아시아지역에 처음창설된 국제오픈대회라는 점이다。한국보다 먼저 세계탁구계를 지배했던 日本은 서울 오픈창설에 자극받아 금년9월 東京에서 처음 日本 오픈을 열기로했으며 서울 오픈의 우수한 조직력을 배우기위해 행정요원을 파견하고있는 실정이다。

유럽과 美洲에는 각국내 탁구인들의 잔치를겸한 많은 오픈대회가 있다。英國、西獨、프랑스、스칸디나비아、캐나다、美國、이탈리아、프랑스등등…。그러나 세계선수권대회에 준하는 가장 수준높고 권위있는 오픈대회는 스칸디나비아 오픈(SOC)이다。82년으로 25회째를 맞게되는 SOC는 매년세계선수권에 대비한 세계강호들의 전초전으로 세계탁구계가 가장큰 비중을 두고있는대회다。스웨덴、체코、유고、헝가리등 동、서유럽의 강호들과 中共、한국、日本、북한등 아시아의 강자들이 이대회에서 상대의 전력을 탐색하고 세계선수권을 위한 작전을 수립하게된다。대회 주최측은 경비부담을 덜기위해 금년부터 격년제로 대회를열기로했다。

◇주요 국제오픈대회 <82년현재>

대회	횟수	시기
영국오픈	54회	1월
서독오픈	30″	1″
전미오픈	52″	6″
캐나다오픈	42″	7″
서울오픈	2″	8″
프랑스오픈	30″	12″
스칸디나비아오픈	25″	12″

가장 오랜역사를 자랑하는 오픈대회는 54년의 역사를가진英國오픈과52년의 전통을가진 全美오픈이다。그러나 두 대회 모두 수준이나 조직력이 SOC에비해 떨어지는편이다。全美오픈은 국제 오픈이긴하지만 오히려 국내탁구인들의 잔치에 국제적스타들을 초청、시범경기를 갖는듯한 형태를 보이고있다。성별·연령에 상관없이 경기수준에따라 많은 캐터고리로나누어 작은 상금을 걸고 경기를 치르며 국제적 선수들의대결을 관전、흉내를 내는것이 全美오픈의 전통적인 모습이다。

최근에는 西獨、프랑스오픈이 스칸디나비아 오픈을 전후하여 유럽을 원정하는 아시아팀들을 초청、대회수준을 높여가고있다。핀란드도 스칸디아 오픈직후인 12월중순 오픈대회를 마련、세계탁구인들의 교류를 꾀하고있다。

세계탁구를 지배하고있는 中共은 국제적인 오픈대회를 열지않고있으나 日·中정기친선경기와 해외원정으로교류의 문을 열고있다。서울 오픈의 과제는 동구강호들과 中共등 세계최강팀들을 초청、대회수준을 높이는것과 경비지출을 줄여 알차고 실효있는 대회를 만드는 것이다。【方錫鉤기자】

키큰 水原女高 1승
단신速攻의 祥明에 76-67
쌍룡기 高校농구

제18회 쌍룡기쟁탈 전국남녀 고교대회가 남고 17개팀 여고 11개팀이 출전한 가운데 24일 장충체육관서 개막됐다。

첫날여고 C조에서 水原女高는 장신 文敬子 李喜容의 활약으로 李金眞 李桂淑등 단신들이 분전한 祥明女高를 76-67로 꺾고 1승을 올렸다。

한편 남고부D조에서는 光新商高의 金才得이 33점을 얻는 분투로 全北師大附高를 59-47로 격파,첫 개가를 올렸고 C조의 大京商高는 弘大附高에 84-58로 대승, 1승을 올렸다。

이번대회 남고부는 4개조, 여고부는 3개조로 나뉘어 예선리그를 벌인다음 각조상위 2개팀이 결승 토너먼트에 진출,패권을 겨룬다。

이날 水原女高는 후반10분까지 게임의 주도권을 잡았으나 祥明女高의 강력한 맨투맨에 막히면서 페이스가급강하했다。祥明은 水原의 文敬子(1m81) 李喜容(1m80)두장신의 콤비플레이를 깨뜨리고 속공과 李金眞 李桂淑등의과감한 드라이브인으로 한때리드를 잡았으나 文敬子의 마크에 집착한 나머지 李喜容에게 잇따라 골을 허용,61-60으로 역전당했으며 水原의 포스트플레이를 막지못해 끝내 76-67로 졌다。

◇첫날전적

조	팀	점수	전반·후반	점수	팀
▲여고C조	수원여고	76	(36 40 / 32 35)	67	상명여고
▲남고D조	광신상고	59	(26 33 / 28 19)	47	전북사대부고
▲동C조	대경상고	84	(34 50 / 23 35)	58	홍대부고
▲동A조	계성고	70	(44 26 / 25 25)	50	경북고교

南楊州에 스키場
선산개발서 建設

【水原】경기 南楊州郡 和道面 磨峴里와 磨石隅里일대 능선에 44만4천8백38㎡규모의 스키장이 새로건설된다。【鉛】

成貞兒 대표로 선발
농구協 身長183㎝… 全美愛와교체

대한 농구협회는 청소년대표선수인 成貞兒(三千浦女綜高1년)를 24일 대표선수로 선발했다。成貞兒의 기용은 코칭스태프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이뤄졌는데 키1m83의 成은 全美愛와 교체된다。고교1년생으로 국가대표에 발탁된것은 朴贊淑이래두번째이다。

金柱錫·吳允煥 첫날 豫選탈락
세계사이클大會

【레스터(英國)23日聯合=特約】82년도 세계사이클선수권대회가 23일 이곳 사프론경기장서 개막、첫날 4천m 개인 추발(아마추어부문)에서 한국의 金柱錫과 吳允煥은 역부족、예선탈락했다。

이날 東獨의 마리오·에르니그는 4천m 예선서 4분45초69의 최고기록으로 8강에 진입、한국최고기록(5분21초63·金柱錫)보다 35초이상 앞섰다。

한국은 이대회에 12명의 선수(트랙6、도로6)를 파견하고있다。

한국女子팀 5位
日주니어에 完敗
태평양J배구

【東京支社】한국청소년여자배구팀은 제9회 환태평양주니어배구선수권대회 최종전에서 日本주니어대표팀에 3-0으로 완패、2승4패로 5위를 마크했다。

24일 요꼬하마 시립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6일째 경기서 한국은 日本실업최강 히다찌팀 신입생을 주축으로한 주니어팀에 제3세트 한때 접전을 전개했을뿐 역부족이었다。

한편 5전전승을 기록하고있는 日本주니어와 中共은 25일 여자부우승을 놓고 대결한다。

◇제6차전적

日本주니어 3 (15-13, 15-8, 15-9) 0 한국

建大、방國꺾어
국제축구

【다카(방글라데시)=聯合】방글라데시대통령배축구대회에 출전중인 한국의 建國大는 23일 홈팀인 방글라데시를 1-0으로 물리쳤다。

中共은 이날 파키스탄에 4-0으로 승리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98>

朴婉緖 作 金光培 畵

미리온아이 ①

오목이는 더는 아픈 것을 참을수 없어 일환이를 흔들어 깨웠다。

『이상해요。벌써 애기를 낳으려나봐요。밤새도록 배가 아팠어요』

그녀는 이를 악물고 또박또박 말했다。일환이가 부시시 일어나 불을 켰다。그녀의 입술엔 밤새 참아낸 고통이 처참하게 으깨진 피딱지가 되어 남아있었다。

『겁 내지마』

일환이는 그녀를 업는지 하면 하고 말했다。그녀가 임신한걸 처음 알았을 때도 그는 그렇게 말했었다。무엇을 겁내지 말라는 걸까?처음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그말이 차라리 더 무서웠다。

『무서워、무서워…』

오목이는 울먹이면서 돌아앉은 그의 허리를 안았다。담방 힘이 주어진 것 처럼 진통이 다급해졌다。

『겁내지 말라니까…』

그가 필사적으로 휘감기는 오목이를 모질게 뿌리치고 우뚝 일어섰다。그가 오목이를 보려하지않았기때문에 오목이 역시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장마철에 벽에서 물이 줄줄 흐르면서 들고 일어난벽지를 가위로 겨우겨우 다시 풀칠을 해서 붙여놓았건만 을씨년한 김장철로 접어들면서 벽지는 다시 처지기 시작했다。

젖은 누더기를 걸어놓은 것처럼 벽지가처진벽에서 일환이는 몸씨 제옷을 찾아서 바지가랑이에 발을 꿰다말고 한발로 벌레를 죽이기 시작했다。지하의 방엔 다족류(多足類)의 벌레들이 많이 꼬였다。

여름내 극성을 떨던 그리마、지네、노래기따위 벌레들이 날씨가 추워지면서 많이 줄어들었다곤 하지만 밤새 돌아다니다가 전깃불에 놀라 갈팡질팡하는 것에도 꽤 됐다。

『여보、돈벌레는 죽이지 마요』

오목이가 그 경황중에도 그리마를 짓밟을때는 일환이의 발을 휘어감으며 만류했다。그리마는 쏜살같이 비낀 장판밑으로 도망쳤다。

『돈벌레?』

일환이가 되묻으며 오목이를 바라다보았다。그의 얼굴에、상심과도 같은、연민과도 같은게 진하게 번졌다。눈길이 마주친 오목이는 새삼 가슴이 찡하면서 왈칵 울음이 북받쳤다。

그러나 일환이는 곧 표정없이 무뚝뚝한 얼굴로 옷을챙겨입고 시계를 보았다。

『날이 밝았을 거야。』

『어딜 가려고?』

『돈을 좀 마련해가지고 올게。』

『돈은 있어요。같이만 있어주면 돼요。』

『병원에 갈돈 있어?』

『그렇게많인 없어도…』

오목이가 다시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떴다。일환이는 차갑게 굳은 얼굴로 이를 못본척 문밖으로 나왔다。

『같이만 있어주면 돼、같이만 있어주면 돼、…』

오목이는 방문밖에다 대고 울면서 애걸했지만 일환이는 귀 먹은것처럼 멍하니 방문 밖의 어둠속에 서있다가 땅위로 통하는 계단을 올라가 녹슨 쇠문을 열었다。땅위는 밝은 아침이었다。

방속에서 그가 나가는 소리를 들은 오목이는 야속하고 겁도 났지만 한편마음 놓고 신음소리를 내도 된다는 해방감을 느꼈다。

『나는 무얼 겁 내는 걸까?그가 겁 내지말라는 건 무엇을 가르키는걸까?』

오목이는 둘 다 알수없는채 고통의 옆에서 신음하는 것조차 겁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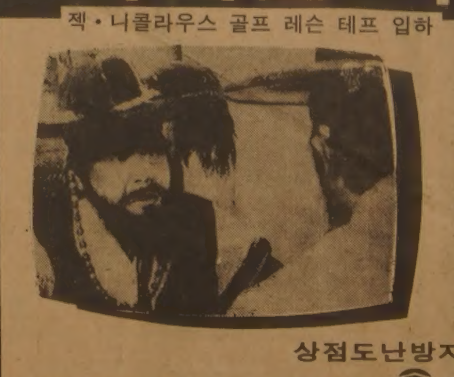
조규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한국일보 633·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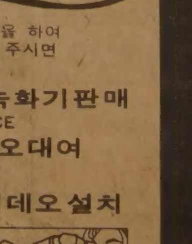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여름을 시원하게
젝·니콜라우스 골프 레슨 테프 입하
최근도입된 인기절정의…… 비데오



인기있는 각종 Program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면에서 상담을 하여 드리고 있아오니 일차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비데오기계및녹화기판매 100% AFTER SERVICE
● 600여각종비데오대여
상점도난방지및안전을위한비데오설치
보아서유익한가정용 비데오전문 SANYO



코리아나 비데오센터
Koreana Video Centre · 678 Bloor St. West · 532-0210

가봉橫斷鐵道건설 참여

全·봉고大統領 어제 1차 頂上會談

自動車 조립工場 합작
港灣·鑛物개발도 協力

기관차·客車·선박 수출…電子·皮革 진출

오늘上午 阿洲마지막 巡訪國 세네갈로

【리브레빌=尹國炳특파원】 全斗煥대통령과 봉고대통령은 23일하오 6시30분(한국시간) 대통령궁에서 韓·가봉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한 국제정세, 개발도상국간의 긴밀한 협력문제 反植民主의노선에의 공동추구및 양국간의 경제협력문제등 공동관심사를 폭넓게 논의했다. 全대통령은 頂上회담이 끝난뒤 이날 하오 리브레빌 市廳을 방문하고 外交團을 접견했는데 가봉방문마지막날인 24일상오 봉고 대통령을 告別예방한 후 가봉을출발, 아프리카 마지막巡訪國인 세네갈로 떠난다.

양국원수는 오늘날 유엔을 비롯한 각종국제기구들의 紛爭억지력과 조정력이 점차감소되고 있다는데 의견을같이하고 모든 開途國들은 이같은 상황에 대비한 自救策으로 서로의 힘을 조직화하여 공동 대처해나가야 하며反植民主의노선을 상호 단결을통해 철저히 추구, 開途國끼리는물론 韓·가봉양국간의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는데 합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원수는 특히 두나라간의 긴밀한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논의, ▲경제기술 과학 문화 관광분야의협력▲한국의 가봉경제개발계획에대한참여▲과학기술연구기관간의협력▲산업技能人力훈련▲철도항만등 가봉의 각종 건설사업에의참여와 소규모 공장건설추진▲양국간 무역확대문제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에서는 또 가봉橫斷철도건설에 한국이 참여하는문제와 횡단철도용기관차와 客貨車및 선박의 延拂수출문제, 電子제품, 皮革제품, 자동차조립공장등의 중소기업합작추진문제, 우라늄, 석유, 철강, 망간등 가봉의 鑛物자원개발에의 협력및 참여문제, 양국간 해운협정과 항공협정체결문제등을 논의한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원수는 이와 관련한구체적인문제는 양국의 관계각료회담을 통해 협의를 계속토록 한것으로 알려졌다.

2시간 가까이계속된 이날 회담에서 全대통령은 북괴는 아직도 무력통일정책을 포기하지않은채 군비를 증강, 세계 곳곳에서 게릴라를 수출하는등 분쟁을 조성하고있어 한반도를 긴장상태에 몰아넣고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위한 우리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자세히설명했으며 이에봉고대통령은 대화를통한 우리의 통일정책에 전적인동감을 표시하고앞으로도적극지지한것을다짐한것으로알려졌다.

한편 이날 양국정상회담후 양국관계각료는 확대회의를 열어 양국원수간에 논의된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 全斗煥대통령은 22일하오 가봉국 레옹·음바 국제공항 환영식에도착, 봉고대통령의 영접을 받고있다. 【청와대기자단聯】

"貿易協定 조속체결"

韓·나이지리아 共同聲明

【라고스=尹國炳 특파원】 全斗煥대통령과 알하지·세후·샤가리 나이지리아대통령은 22일하오 공동성명을 발표, 『양국대통령은 開發途上國간의 협력이 개발도상국과 先進國간의 협력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확신하고 양국이 自助와 상호의존의 정신으로 각자의 경제개발과정에서 얻은 경험을 교환할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全·샤가리 두나라 대통령은 全대통령의 2박3일간에 걸친 나이지리아 공식방문을 결산하며발표한 23개항의 이 공동성명을통해 『양국대통령은 이번 방문기간중 조인된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에 기초하여 무역·공업·에너지·과학기술및 사회基幹산업분야의 雙務的협정을 더욱 多邊化하기로 합의했다』고말하고 『두대통령은 양국간 경제협력분야중에서▲농업·과학및 기술분야의 관리인·전문가·기술자의 교환 ▲韓國기업의 나이지리아 개발계획에의 참여▲합작기업 형태를 통한 양국기업인의 활동증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국대통령은 효과적인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목적으로 무역협정 해운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등 현안중인 협정의조속한 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에 합의했다』고 이 성명은 밝혔다.

이 聲明은 또『양국대통령이 韓·나이지리아 쌍무관계가 지속적으로 증진되고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이러한 양국관계를 확대、다양화하고자하는 양국정부의 계속적인 희망을 확인했다』고 밝히고『양국대통령은 제반분야에 있어서의 상호방문교류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社會漫評

흩어지는 「爆發物」…

1陣、요르단·이라크着

撤收PLO 차량船積싸고 실랑이… 2陣도출발

【베이루트·라르나카22日AP=聯】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소속 게릴라들의 레바논철수작업이 예정대로 진행돼 22일까지 1、2차에 걸쳐 모두 1천4백명의 게릴라들이 레바논을 떠났으며 이중 1진은 그들의 목적지인 요르단과 이라크에 안착했다.

역사적인 PLO의 레바논철수작업은 21일 1진 3백97명이 그리스선적의 솔·게오르기오號에 승선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철수작업은 다음날인 22일 PLO의 주요그룹을 형성하고있는 파타와 PLA(팔레스타인 해방군)의 아인·자루트연대소속 게릴라 9백82명이 키프로스선적의 페리 솔·H리지호를 타고 베이루트항을 출발, 튀니지로 떠남으로써 재개됐다.

2진의 출발은 이스라엘측이 이 게릴라들이 개인화기외에 지프21대를 이 페리에 적재하고 일부 대원들이 가족들을 대동하는데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수시간동안 지연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부는 PLO게릴라들이 가지고가는 지프를 키프로스에 하역시키겠다는 미국정부의 타협안을 수락, 2진의 출발에 동의했다.

한편 요르단이 목적지인 게릴라들을 태우고 키프로스를 떠난 요르단 공군소속의 C 130허큘리스 수송기와 미들·이스트 항공사(MEA) 소속 전세기수대는 이날 이라크와요르단에예정대로안착했다.

◇告別…痛恨…몸부림 팔레스타인전사의 한부인이 22일 2진으로 베이루트를 떠나는 남편과 고별인사를 나누면서 몸부림을 치고있다. 【베이루트22日AP聯=聯】

"교과서記述 보다 適切히"

스즈끼日首相 회견 "구체적 解決策 검토중"

"檢定制度지키며 批判반영 시간걸려"

【東京23日=宋孝彬특파원】 일본의 스즈끼(鈴木)수상은 23일하오3시 수상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서歪曲 검정문제에대해『과거의전쟁에대한 反省과 책임에입각、교과서의 記述이 보다 적절한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해 재수정의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방법、시기등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

스즈끼수상은 이날 內閣출입기자들과의 회견에서 ①과거전쟁에 대한 책임과 反省 ②韓·日공동성명과 日·中共공동성명에 대한 인식의不變 ③이 바탕위에서의 학교교육의 실시등을 역설하고『검정교과서 기술이보다 한층적절한것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체적대응책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일단 교과서문제에대한 스즈끼수상의 이같은 견해발표에 따라 미야자와(宮澤)관방장관을 중심으로 외무、문부兩省의 의견을 조정、27일 사꾸라우찌(櫻內)외상의 외유에앞서 일본정부의 구체적인 통일견해를 발표할 예정이다.

스즈끼수상은 또『과거의 전쟁에대한 평가는 공정한역사가의 판단에 맡기는일이지만 국제적으로는「침략」이었다는 강한비판이있다는 사실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있다』고 말하고『교과서검정문제는 일본전후교육을 편향교육에서 공정한교육으로 되돌리기위한 근간이므로 검정제도를 지켜야하는 동시에 해당국가로부터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 두가지문제를 다같이 해결키위해서는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말했다.

스즈끼수상은 그밖에도 9월하순 중공을 방문하기전에 한국과 중공등 아시아국가가 납득할수있는 해결책을 수상책임하에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日軍國主義등 질의

오늘 外務委 日帝侵略史 편찬要求도

국회는 24일하오2시 外務委를 열어 일본의역사교과서歪曲문제에대한 정부의 대응책및 對日是正교섭 경위등에 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인다.

일본교과서 歪曲문제와 관련, 지난5일 文公委에 이어 열리는 이번 外務委에서 與野의원들은 특히 교과서歪曲을 시정하기위한 확고한 對日외교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나아가 일본의 왜곡배경과韓日관계의 再정립및 일본군국주의 부활가능성에 대한 대비책도 논의할것으로 보인다.

民韓、국민당등 주요정당은 23일 外務委대책회의를갖고 정책질의 방향을 점검했다.

民韓黨은 이날 총무단 소속외무위원연석회의를 열고 일본교과서歪曲이 이달안에 반드시 시정되어야하고 이를위해 정부의 강력한대응책을 촉구한다는 당무회의의 결의를 재확인했다.

국민당도 이날 총무단 黨소속외무위원 연석회의에서 中共등 2차대전때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나라들과 공동으로 日帝侵略史를 편찬토록 정부에 촉구키로했다.

조속是正 논의

李載瀅議員聯회장 日側訪韓團에강조

李載瀅韓日의원연맹 한국측회장은 23일상오 訪韓중인 일본自民黨의 미쓰즈까·히로시(三塚博)교과서문제小위원장과 모리·요시오(森喜郞)前文教部會長의예방을 받고 日本교과서 시정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滿洲建國碑」건립 움직임

기시前首相이 會長 正當化기도

【東京23日=宋孝彬특파원】 일본역사교과서의 왜곡검정문제로 韓·日、日·中共간에 심각한 외교문제가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중국대륙을 침략하면서 만들었던 괴뢰정권인 滿洲國에 근무했던 일본인관계자들이「滿洲建國之碑」를 건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이 밝혀졌다.

23일자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한바에 따르면 이운동을 추진하고있는「滿洲建國碑건설회」는 기시(岸信介)前수상(前滿洲國총무처차장)을 회장, 후루미(古海忠之)모회사 상담역(同총무처장)을 부회장으로하고 야스이(安井謙)日韓의원연맹회장、미하라(三原朝雄)전방위청장관등 일본政財界거물급인사 10여명이 고문으로 추대되어있으며 舊滿洲國관계자 3백30명이 실행위원으로 건립기금 모금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이 만든 건립취지서는 『滿洲國의 이상과 그사적을 바르게 후세에 전할 필요를 통감한다』고 밝히고있어 1932년 일본 관동군참모부가 중국대륙침략을 은폐하기 위해 건설한 일본의 괴뢰정권인 滿洲國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있는 것으로 보인다.

「滿洲建國之碑」는 靜岡縣에있는 富士公園에 세워질 예정인데 모금및 건립기간은 82년3월부터83년12월까지로 5천만엔을모금할계획이다.

地平線

종교와 국가, 종교와 사회, 그리고 종교와개인의관계가 어떤것이며 어떻게 定立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확연한 해답을 내리기는어렵다. 종교계에서 주장하는것과 비종교계에서 정의하는 내용 사이엔 때때로 엄청난 괴리가 있다. 그래서 종교계에서 일어난 세속적 突風을 맞았을때 모두는당황할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열린 第3回 아시아宣教협의회 3년차대회는 우선 이런 문제에 관해 종교계로서 견지해야 할 기본 입장을 분명히 제시해 놓은것같다.▼協議會가 취한 입장은 또 비종교계로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있는 타당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종교의 한 진면모를 이대회는 보여주었다고 할수있게 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6일 개막되어 21일에 끝난 이번 대회에서는「기독교 선교에 관한 아시아人의 公約」이란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公約」은 인간의 罪와 社會와의 관계에 대해 엄정한 정의를 내렸다. 즉 現代人의 문제는 罪에 대한 不感症에 있으며 宣教사업은 罪의 원인·결과에 관한『聖經의 가르침을 바르게 증거』하는데 있다고 종교의 역할에 선을 그었다.▼이런 前提에서 罪를 社會나 社會구조에 전가함은「非聖書的」이며 社會를 階級으로까지 분류하여 階級鬪爭속에서 社會正義구현을 모색하거나 폭력사용을 시인함은 용납되지않는다고 이公約은 정면으로 否定하고 나섰다. 이 대회에 참가했던 멕시코神學校長인 파블로·페레즈박사는 「解放神學」에 대해『일거에 민중의 꿈을 실현시켜주리라던 기대는 이제 中南美의 신앙인들에게서 사라져가고 있다』고「신신학」의 현주소를 밝혔다.▼1973년 8월 태동한 이 協議會는 그첫 大會를 75년 서울에서 열었었다. 그 때 부터 이 協議會는 教會와 國家、국가와 教會、教會와 국가와의 관계를 바로 잡고, 또 그속의 不協和音을 제거하는 노력을 선교활동을 통해 실현하는 문제를 다루어왔다. 올해는「萬民을 위하여 旗를 들자」는 주제를 내세우고 인류의 인류에대한 문제속에서 국가·사회·개인 그리고 神에 대한 문제의 회답을 찾자고 나섰었다.▼결국 종교가 처해야 할 입장을 명백히 설정함과 동시에 아시아·아프리카、라틴 아메리카등 第3世界의 기독교가 내세울 각기의 旗ㅅ발을 그려내자고 결의하였다. 그地域안에서 宗教로서 지녀야할 제모습을 되찾기위해「西歐식민주의」와「오욕된 역사」와 그리고도처에서 엿뵈는「전통적 선교에대한 거부」와 作別할것을 선언하였다. 제땅에서 제모습대로의 종교를찾으려는 종교인의 노력은 믿음직한 것이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나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Cooper Furs
밍크특별여름세일
밍크(모든 쉐이드), 비버-여우-라쿤-코요트-페르시안 양등을 이윤 없이 판매함.
비 정상적 가격
40% 할인

40년 전통, 수리, 재 재단, 세탁포함.
일요일은 예약자에 한해 영업함.
1978 Weston Rd. 정성주
(Lawrence 1블록 북쪽)
☎ : 241-8091, (R)276-4373

맛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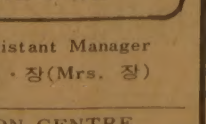
RELAX IN PRIVATE COMFORT
'Whirlpool' 'Sauna' 'Showers' 'Gym'
OPEN 10 a.m.-1 a.m.
5170 DIXIE ROAD
OPEN SUNDAYS 624-8822
(near airport)
MISSISSAUGA

De 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2 Carat Diamond Cluster Ring
— Reg. 1,000.00
— Spec. 749.95

Coin Jewelly
고급시계
이태리 수입 고급
귀금속 취급

Assistant Manager
지니 · 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드럭,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의문

메아리

인 사

克日하자고들 한다. 일본한테 배울것은 배우고 일본의 잔재를 버릴것은 버리고하여 우리힘을 기르고 그 힘으로 일본을 따라잡자는 말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이라면 그저 排日하고 反日하는것만이 애국하는 길인줄 알았는데 이제 배울것은 배우자는 자각이 생긴것은 무조건의 排日과 反日에서의 한가지 해방이라 할수있다.

일본을 이기자면 우리자신의 자세를 가다듬기 위해 民族史를 재정립해야하고, 일본을 알기위해 학문적인 천착이 있어야하고, 우리의 힘을 創出하기위해 總意와 능력을 개발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치지도자나 지식인들의 所任이지 일반국민들은 그들의 지혜와 口號를 기다리기만하면 되는것인가. 한 시민이 오늘아침에 당장 해야할일은 없는가.

어제아침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안에 타고있는 낯선 이웃사람에게 인사를 했더니 그이웃은 무슨 못볼것이라도 본것처럼 당황을 하다가 끝내 인사를 받지않고 내려버렸다.

수학에는 減少幾何級數란것이 있다. 한 線分의 길이를 1이라할때 이것을 반으로 자르면 0·5다. 나머지를 또 반으로 자르고 그 나머지를 다시 반자르고하여 자주 보태가면 1에 가까와진다. 半分을 10번만해도 0·99902 34…까지 갈수있다. 그러면 몇번의 半分을 되풀이하면 정확하게 1이 되느냐. 정답은 「無限大」다. 즉 반씩만 가지고는 아무리 보태가도 절대로 1이될 수없다는 말이다.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격차를 해마다 반씩만 줄여갈수있다면 10년이면 거의 가까와진다. 그러나 반씩만으로는 일본을 언제까지나 넘어서지 못한다. 半進의 벽을 뚫자면 우주선이 引力圈을 벗어날때와같은 脫出速度가 필요하다. 타성이된 日常에서 벗어날 힘이 있어야한다.

인사를 하지않고 지나던 낯선 이웃에게 엘리베이터안에서 갑자기 인사를 걸기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런 한가지라도 타성을 깨지않고는 일본에 반씩이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해외여행자들이 부쩍 늘어 세계 어디로 가나 길거리에서 서로 만나진다. 서양에 내놓으면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엇비슷해서 얼른 구별하기 어려울 경우가 많다. 그러나 몇걸음 안가서 금방 드러난다. 일본인들은 상대방이 일본인이다 싶으면 반드시 눈인사로라도 알은체를하고 지나간다. 저들도 금방 분간이 안되니까 대개 한국사람에게도 인사를 하게 마련이다. 한국인의 경우는 어떤가. 인사는 고사하고 저쪽이 한국인같아 보이면 그때부터 좀 과장하자면 임전태세에 들어간다. 곁눈으로 상대방의 옷발을 재기시작한다. 누구길래 외국여행을 다 나왔나하고 훑는 얼굴모습이다. 한국인과 일본인을 가장 쉽게 가려낼수 있는 이점이 바로 한국과 일본의 격차의 시발점이다.

일본이 그들의 국력을 뭉쳐온 힘이 단결심이라면 그 접착제가 인사다. 우리는 安南米 밥처럼 푸석푸석 풀기가 없다. 흔히 일본인의 친절은 겉 다르고 속 다른 僞善이라고 경멸한다. 하지만 친절이란 본래가 克己요 인내다. 일본인들은 밖에나가면 깃발을 따라 우르르 몰려다닌다고 우리는 비웃어왔다. 그러나 단결은 자기희생이다.

東京의 나리따 국제공항에 내려보면 승객들이 나오는 출구에 「해외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읍니까. 어서 돌아오십시오」라고 일본인들만 알아보는게 일본어로 커다랗게 쓰여있다. 나라가 그 깃발의 국민을 마중나와 인사를 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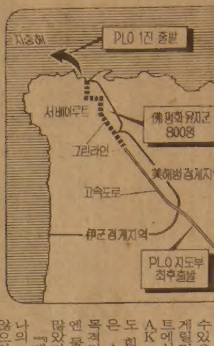
金聖佑 <編輯委員>

48년이후 세번째 受難 "우리는 다시 結合한다"

PLO의 내일 <上>

"2백년 걸려도 鬪爭계속"

◇輸送船에 旗꽂는 PLO隊員 西베이루트를 떠난 PLO대원들이 자신들을 수송한 솔·게오르기우스號船首에 PLO旗를 꽂고있다. 【UPI】



팔레스타인 난민에겐 오직 한 가지 꿈이 있을뿐이다. 어머니 젖무덤같이 보드랍고 고향의 구릉들, 그리고 오렌지 숲이 우거진 옛 팔레스타인땅으로 되돌아가는 望鄕의 꿈이 그것이다.

유태인이 객지의 천대와 박해때문에 민족의 동질성을 끝내 지킬수 있었듯이 그들의 민족혼과 望鄕의 꿈도 유랑의 고통과함께 커나간다.

이스라엘軍의 총칼밑에서 PLO1陣이 12년 정붙이고 살아온 베이루트를 떠나던 날, 이미 전장에서 남편과 자식들을 잃어버린 여인네들은 『저들모두가내 자식이고 남편들』이라고 외쳤다. 그리고 목놓아 울어버렸다.

작별보다는 戰士들이 곁을 떠나니 고향에 갈 날이 멀어지는 것 같아 더욱 슬펐을 것이다.

어디 이같은 이별의 고통이 한두번 뿐이었든가. 48년 2천년의 방랑에서 돌아온 유태인들이 팔레스타인땅에 이스라엘國을 건국하면서 그들은 온갖 협박과 총칼의 위협을 받고 첫번째 失鄕의 참담한 맛을 보았다. 64년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창설된지 7년째되는 70년, PLO좌파가 요르단 王政 전복쿠데타기도에 관련됐다는 혐의때문에 후세인王의 정부군에 쫓겨 2만의 사망자를 내고 무차별 추방을 당한 것이 두번째, 그리고 77일간의 항전끝에 떠난 이번 西베이루트 철수가 3번째다.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對이스라엘 투쟁의 戰士를만들기위해 자식을 낳는다.

『이 애들이 내아들이에요. 나는 혁명투사를 만들려고 빨리 결혼했어요』 벌써 자식 둘을 둔 겨우 19살짜리 어머니의 말이다.

『나는 고향에 돌아가기위해 내자식 다섯을 희생시킬 각오가 돼있읍니다. 3명은 벌써 西베이루트전선에서 싸웠어요』 혈육의 소중함을 가장 뼈저리게 실감할 나이인 61세 노인의 말이 이렇다.

多産과 이렇게 강렬한 민족혼이 총알보다 더무서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무기다.

난민의 거의 절반이 14세 이하다. 무기를 지탱할 수있으면 벌써 총을 잡고 게릴라가 된다. 西베이루트에서 싸운 게릴라중에는 AK소총을 들어올리기에도 힘이 벅찬 10살 갓 넘은 소년戰士가 많았다고 목격자들은 전한다. 이중엔 물론 半白의 戰士들도 많았다.

『베이루트여, 너는 너와 나의 역사를 영원히 잊지 않으리라.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未知의 운명이 기다리는 또 다른 타관行을 앞두고 부모, 처자식과 생이별하는 PLO 전사들은 이렇게외쳤다. 여인네들의 울음은 어느새 『혁명! 혁명!』의 합창으로 변해있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작전으로 PLO가 입은 타격은 심대한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전투의 패배 대신 세계의 뜨거운 관심과 표정을 얻었다. PLO를 테러집단으로 매도하던 서방의 언론들마저도 이스라엘의 과도한 군사행동을 「잔학행위」로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이겼으나 그것이 도리어 국제적 위치를 취약하게 만들어놓은 계기가 되고 있다.

PLO를 어떤 형태로든 세계 1백20개국 이상의 외교적 승인을 얻고있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군사적으로 궁극적인 해결을 볼 수 없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사실이다.

對이戰위해 多産운동도

테러·暗殺행위 더욱 強化될듯

아랍권의 갈등이 심화된 상태에서 西베이루트에서 철수한 PLO 게릴라들을 수용한 국가들은 당장은 PLO 군사조직의 재 정비에 신중할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군사조직의 복원이 시간을 소요하는 사안일지는 모르나 적어도 PLO의 현 지도자들은 對이스라엘 무력투쟁의 결의를 분명히 밝혀놓고 있다. PLO가 순수한 정치단체로만 남게될 것이라는 추측도 부인하고 있다. 對이 무력투쟁의 무대가 요르단 西岸일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멀지않아 투쟁이 시작될것을 예고하고 있는것이다.

만약 수용국가들의 통제가 지나치면 70년대의 PLO와같이 납치, 암살, 파괴와같은 對이스라엘 테러를 제한할수도 있다. 74년 유엔본부에선 아라파트가 「나는 올리브가지와 무기를 가지고 이자리에 섰읍니다. 나로하여금 올리브가지를 떨어뜨리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 연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이 이번 작전에서 암살을기도한 아라파트등 현 지도층이 멀쩡하게 살아있다. 이들이 각기 다른나라로 분산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반드시 PLO의 와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튀니지 카이로아니면 다마스커스에 PLO본부가 다시 들어설것이 예정돼있으며 아라파트 현 의장은 이곳 저곳을 돌면서 PLO게릴라들을 관리하게 돼 있는것이다.

PLO는 결코 부숴지지 않았다. 더구나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은 아랍민족주의를 더욱 거세게 자극해놓아 PLO지원행동을 강화해줄수도 있다.

유태인이 미국등 재벌동족의 지원을 받아 팔레스타인 땅에 정착할수 있었듯이 아랍제국에 분산, 힘을 잡은 팔레스타인 정책자들도 큰 힘이 돼주고 있다. 이들은 또한 팔레스타인귀환을 거부한 유태인이 있었던 것과는 달리 귀향의 결심이 뚜렷한 사람들이다.

팔레스타인 난민중에는 요르단의 은행가도있고 사업가도 있으며 놀부도 물론있다. 사우디의 아람코 만 연안국에서 고위관리로도 있으며 석유 기술자로 있는 사람도 많다.

미국에도 10만이상의 팔레스타인난민이 있다. 이들중에 성공한 사람도 많아서 선생 교수 의사 변호사로 활약을 하고있다.

이스라엘사람들이 대대로 이국의 천대와 박해에 민족동질성을 더욱 강하게 다져갔듯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대한 증오심을 키우면서 동시에 민족의 동질성과 望鄕의 꿈을 더욱 키워나가고 있는것이다.

역사는 잔인하다. 그리고 역설적이다. 난민의 고통을 어느 민족보다 많이 겪은 민족에 의해 팔레스타인은 난민이 되었다. 그들의 민족성은 비슷하다. 가정을 사랑하고 고향을 사랑하며 전통을 고수한다.

그런 그들은 같은 고향의 땅덩이를 두고 유혈전쟁의 악순환을 거듭해나가고 있다.

『우리 조상은 2백년간의 집요한 투쟁끝에 십자군을 몰아냈다. 우리도 필요하다면 2백년을 싸워서 이스라엘을 몰아낼 것이다』는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결의다.

【崔相錫 기자】

◇全斗煥 대통령과 영부인 李順子여사가 22일 상오 가봉의 레옹음바 국제공항에 안착, 가봉소녀로부터 꽃다발 증정을 받은후 포옹하고있다. 【리브레빌 (가봉)=聯合통신=聯】

◇全斗煥 대통령과 영부인 李順子여사가 22일밤(현지시간) 리브레빌의 대통령궁에서 오마르·봉고가봉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받고 악수하고있다. 【리브레빌 (가봉) 聯合=聯】

가봉 全대통령 旅路스케치

뜨거운 포옹인사

◇…22일 낮11시40분(한국시간 하오7시40분) 가봉의 수도 리브레빌의 레옹음바 국제공항에 도착한 全斗煥대통령은 咸泰赫대사및 꿈바·무이띠 가봉대통령실 전장의 機上영접을받은뒤 트랩을내려 봉고대통령의 따뜻한 환영을받았다.

全대통령은 봉고대통령과 어깨를 껴안으며 반가와했고 영부인 李順子여사도 영접나온 레미안수상부인및 봉고대통령영애와 볼을 맞대며 첫상면의 인사를 나눴다.

이어 양국원수가 공항안에 마련된 사열대에오르자 육군군악대가 국가를연주하는 가운데 21발의 예포가 흰砲煙을뿜으며 멀리 東方에서온한국의 대통령일행을환영했다.

海外토픽

◇83년의 야회복 파리의 유명한 의상디자이너 파코·라반의 82~83년 추동복 컬렉션에 선보인 야회복. 『달빛에 취한 피에로』 【키스톤=聯合】

官公署에서 禁煙

★말레이지아담배선전禁止

말레이지아수상실은 최근 모든 관공서에서 흡연을금하는 19개항목의 지침을 하달했다고.

수상실은 TV·라디오를비롯 정부와 스포츠단체등의간행물을 통한 담배선전을 금지한데이어 취해진 이같은조치가 흡연으로인한 국민들의 질병을 예방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

회람을 통해 하달된 19개항의 지침은 금연 운동의 선공을 거두기 위해 관공서의 회의실·대기실 및 창구등에 금연경고문을 써붙이는 한편 재떨이를 치우도록하고 州정부에 대해서는 도로변의 게시판을비롯한 공공장소에 담배선전을 금지시키도록 지시했다고. 【쿠알라룸푸르=聯合】

印서 아기팔아暴利

★美入養기관에 스캔들

미국조지아주 아틀랜타에 있는 한 입양기관이 인도 캘커타의 빈민촌에서 태어난지 2~3주밖에 되지않는 수백명의 아기들을 싼값으로 사들여 1명당 3천4백80달러(약2백50만원)씩 받고 미국가정에 팔아왔다고 런던 메일지가 22일보도.

메일지에 따르면 이 기관은 월남전당시 야전군의관으로 복무한바있는 한 미국인의 캘커타 난민보건소와 짜고 주로 미국항공사직원중비번인 사람들을 고용, 이들편에 아기들을 『부치는』 방법으로 『아기판매』를 해왔는데 트랜스·월드항공사 직원인 메어리·린치씨(39)자신이 13차례나 그런일을 했다고 실토했다는것. 【런던=AP】

佛人도 차도르着用

★이란大使館서義務化조치

파리의 이란대사관에 근무하는 여성고용원들은 비록 프랑스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이란의 본국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랍여인들의 전통적인 옷인 차도르 착용이 의무화 됐다고 이란대사관 소식통들이 21일 전했다. 【파리=AP】

제1회 토론토지구 한국인교회학교

교사연합수련회

교회학교 교사및 관련자들의 자질향상과 신앙수련및 상호협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1. 일시 : 1982년 9월 4일(토) 오전8시30분~오후6시
2. 장소 : 한인장로교회 1183 Davenport Rd. (Tel 535-6864)
3. 대상 : (1)교회학교 유초, 중고, 대학부(청년부)교사
   (2)아동및 청소년 교육에 관심이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 및 교우
4. 참가비 : 1인당 $5.00
5. 강사및 강의내용 : (1)김경진 목사(개회 예배 설교)
   (2)김용출 목사(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활)
   (3)박희민 목사(신앙 성장을 위한 교사의 역활)
   (4)임명희 전도사(노래및 율동)
   (5)김상호 목사(아동교육의 심리학적 측면)
   (6)홍신웅 목사(토론토청소년들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 교육)
   (7)최상봉 목사(헌신예배 설교)
   (8)정경진 전도사(신어통)
6. 문의및 연락처 : 이용출 장로 (새한교회) (Res)630-4902 (Bus)633-9420 EXT 486
   신경하 전도사(영락교회) (Res)757-0979 (Church)423-9880
7. 점심 : 벧엘교회 여선교회에서 제공
   간식 : 새한교회, 중앙교회, 한인교회에서 제공
   ※ 베이비 시터 준비되어 있음.

주최 : 토론토지구 한국인교회학교 교사연합회
후 원 : 교역자회 장로연합회

한번오시면 계속 오시게 됩니다

★★★★ 서울식품서부지점 ★★★★

개업특별세일

배추김치·총각무·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배이 ●큰 병 $6.99 ~~$9.50~~
●작은병 $4.50 ~~$6.90~~

	SPEC	REG.
북어포	1.25	~~1.55~~
마른미역	1.99	~~2.50~~
물미역	.99	~~1.29~~
소 면	.89	~~.99~~
냉 면	.99	~~1.29~~
도라지	2.49	~~2.95~~
물오징어	.85	~~.99~~

※ 갈비·불고기·배추·무우는 도매가격으로 제공

쌀 (신품 / 대한 쌀 / 가주미 장미표 / 국보 / 경기미) 사실때 는 삼양라면이나 삼양칼국수 3봉지씩 무료제공합니다. 쌀도 최저가격으로 팝니다.

박 영 조

주소 : 1391 WESTON RD. ☎ : 243-9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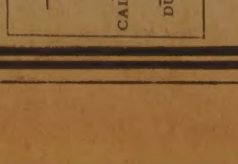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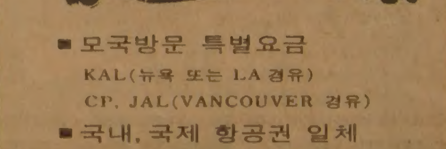
Aug. 16 - Sept. 4/'82

		SPECIAL
Rowntree Reg. Bar	36x40¢	$ 9.99
Lowneys Reg. Bar	36x40	9.99
Cadbury Reg. Bar	36x40	9.99
Hershey Reg. Bar	36x40	7.99
Neilson Family Bar	24x99	14.34
Kisco Kids	100x5	3.05
Yorkie Bars	40x49	11.99
Vicks Coughdrops	20x40	4.99
Bubble Yum	18x30	3.00
Big leauge Chew	12x59	4.59
Y & S Twizzlers	60x10	2.65
Lifesaves Candy	24x30	4.55
Dable gum cigarettes	36x25	5.49
Candy Cigarette	48x10	3.15
Whites Swan Towels	18x2'	17.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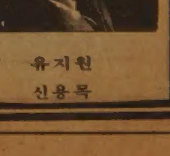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오이가 4배나 커졌다

植物生長촉진제 「트리아콘타놀」로

「제2의 綠色혁명시대」돌입

벼수확 30%이상 增收기대

【水原=朴珍列기자】「제2의 녹색혁명시대」가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있다. 식물생장촉진에 획기적인 역할을하는 식물호르몬트리아 콘타놀(Triacontanol·한국일보 4월13일자 1면머릿기사)을이용, 고추와 토마토에서 60%이상의 증수효과를본 서울대농대 林雄圭박사가 이번에는 오이에 이를활용, 4백%의 놀랄만한 증수효과를 보았다. 이로써 밭작물에서는 혁명적증수효과를 볼수있다는사실이 입증된 셈인데 트리아콘타놀을 사용한 벼도 오는9월중순께 수확하면 줄잡아 30%가량의 증수가 기대돼 주목을 끌고있다.

오이 길이80cm·무게1kg넘어
費用싸 일반農家 보급도 可能

林박사팀이 지난 7월초순께부터 수확하기시작한 오이는 길이가 보통70cm、최고80cm에 무게는 1kg이넘어 재래종보다 길이와 직경이 각각 2배、무게는 4배이상이나 됐다.

林박사팀은 지난 4월23일 水原의 서울농대 노천실험포장(밭)에 재래종인 청룡삼척오이를 차종、16일간 길렀다.

林박사팀은 이중 16주(株)를 지난5월9일 부근 4평 크기의 포랑에 옮겨심었는데 36일이 지나자 떡잎이 3~4개씩 나왔다.

이때 트리아콘타놀 1PPM에 염화칼슘을섞어 농도를 PH9·3으로 만들어 물에 희석해 떡잎에 뿌렸다.

며칠이지나자 줄기가 굵어졌고 잎이 넓게자란 오이는 옮겨심은지 한달가량이 지나면서부터 줄기가 찢어질듯이 오이가 열리기 시작、두달여 지났을때는 길이 70cm가넘는 오이를 수확할수있었다.

수확기도 트리아콘타놀처리를하지않은 같은종류의 오이가 옮겨심은지 50~60일이면 끝물이되는데비해 80~90일까지도 수확기간이 연장됐다.

또 노천재배한 모종에대한 시비(施肥)도 파종후 20일부터 10일간격으로 액상비료를 3회시비、일반농가의 재배방식과 똑같은 방법을썼다고、농약도 일반농가와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양을 뿌렸는데 오이맛은 재래종과 비슷했다.

이번의 성공은 林박사팀이 고추와 토마토는 온실에서60%의 증수를봤지만 오이는노천에서 일반 농토와같은 조건에서 효과를 봤다는점에서 의의가 있다.

林박사팀은 실험포장 처럼 비옥하지않은 토양에서 재배된 오이가 이처럼 높은 증수율을 보였는데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될경우 더욱 높은 증수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林박사팀이 채택한 청룡삼척오이는 재래방식으로 재배할경우 최대길이가 40cm정도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트리아콘타놀은 단독으로 작물에 약간의 증수효과를 낸다고 발표됐으나 트리아콘타놀에 염화칼슘을 혼합、노천재배한 오이에 뿌린결과 획기적인 증수를 거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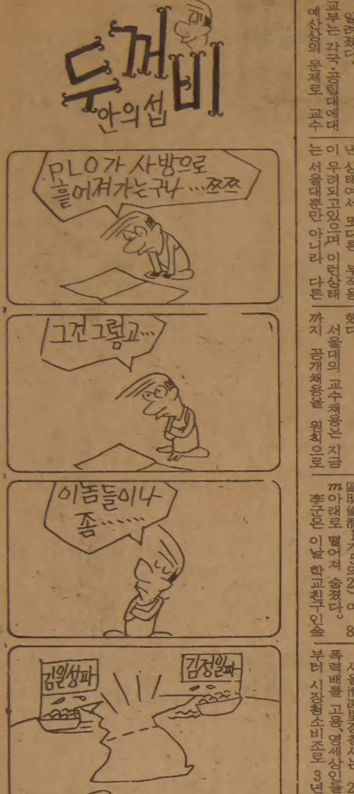
이번 노천재배 실험이▲토양조건·시비·농약살포등이 일반농가와같은 방법을썼고 ▲희석액도 증류수가 아닌 우물물을 사용했으며 ▲관리도 버팀목을세워둔점을강조한 林교수는 트리아콘타놀이 일반재배농가에도 쉽게 보급될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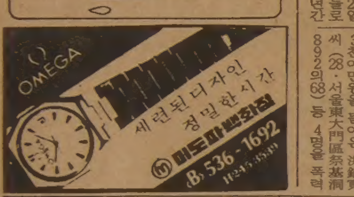
林박사는 지난3월 일반벼와 통일벼 각2종류의 모종을 서울농대 실험포장에 노천재배、트리아콘타놀처리를했는데 추수를앞둔 8월말현재까지 처리하지않은 것보다 월등히 성장이좋은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건으로 봐 벼의 경우도 상당한 증수가 기대된다는 朴교수는 트리아콘타놀은 사용방법이 간편하고 현재여건론 값도 3만평의밭에 뿌릴경우 7천원 안팎이면 돼 실용화도 시간문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6월 미국 버지니아주 생화학연구소장 웰레비박사가 합성에 성공한 트리아콘타놀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합성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리아콘타놀로 처리재배된 오이넝쿨에 재래종보다 2배가량 큰 60~70cm크기의 팔뚝만한 오이가 주렁주렁 달려있다. 【23일상오 水原서울농대노천실험포장에서 李昌淳기자찍음】





서울大、채용敎授 任用미뤄

한달째…"예산절약方針때문"

거의在外·다른大學교수 37명

서울대는 2학기가 시작된 23일까지 교수신규임용을 결정하지 못해 강의에 차질이 우려되고있다.

서울대가 지난7월 신규채용한 교수는 37명으로 신규임용이 늦어지고있는것은 정부의 예산절약방침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교부는 각국·공립대에대해서 예산상의 문제로 교수 신규채용을 8월부터 신중하게 처리해줄것과 교과과정운영상 필요한 인원도 사전에 문교부와 협의를 거친후 임용할것을 요청했었다.

임용이 보류된 37명은 다른대학이나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로 전임지에서 사표를 낸 상태여서 또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고있으며 이런상태는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국·공립대도 마찬가지일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한관계자는 올해 83명의교수를 신규채용할 예정으로 1학기에 이미30명이 임명되었으나 37명이보류된 상태가 길어지면 강의에 차질이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교수채용은 지금까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인사위원회의 사정을거쳐 총장이 문교부에 임용동의를구함으로써 결정됐었다.

仁壽峰암벽오르다 대학생墜落死

22일 하오2시께 서울道峰區牛耳洞산1 인수봉중턱에서 암벽을 오르던 李경복군(19·明知大1년·서울鍾路區明倫洞1가5의25)이 80m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李군은 이날 학교친구인金영훈군(20)과 같이 로프를 이용、암벽을 오르다 앞서오르던 金군이 발을 헛디디며 30m아래로 추락하자 金군과 연결돼 있는 로프가 끌리면서 실족、추락해 변을 당했다.

金군은 30m쯤추락하다 튀어나온 바위에 걸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깡패雇用 영세商갈취

3년간 3천만원…4명拘束

서울淸凉里경찰서는 23일 폭력배를 고용、영세상인들로부터 시장청소비조로 3년간 3천여만원을 뜯어온 洪鍾寬씨(28·서울東大門區祭基洞892의68)등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지난80년부터 지금까지 매년5월말부터 9월말까지 서울東大門區祭基洞 경동시장부근에 무허가 옥수수시장을 개설、임종영씨(39)등 영세상인 1백50여명으로부터 매일 옥수수껍질 청소비조로 1인당50원씩 뜯어냈다는것.

洪씨는 폭력등 전과3범인 金龍玉씨(30)를 고용、청소비를 내지않는 상인들을 협박하기도했다.

漢江서 3명失踪

중부지방에 내린 호우로 한강수위가 최고 4m99cm를 기록한 주말 한강에서 3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22일 하오5시께 서울江西區加陽洞 味元주식회사앞 한강에서 8마력짜리 소형어선(선주 權相玉·58)을 타고가던 南건철(22·공원·江西區登村洞342의2)、吳京相군(17·공원·〃)등 2명이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사고당시 배에는 모두 8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른사람들은 헤엄쳐 나왔으나 南군등 2명은 수영미숙으로 급류에 휘말려버렸다.

無免許 트럭운전 2살어린이 轢死

22일 하오3시께 서울江東區三田洞43의16 李占洙씨(29·상업)집앞골목길에서 면허도없는 李重燮씨(24)가 태광무역상사소속 서울8라8831호 봉고트럭을운전、후진하다 세발자전거를 타고놀던 李씨의장남 俊昊군(2)을치여 숨지게 했다.

成均館、日교과서 歪曲규탄

成均館산하 전국유림대표 1천여명은 22일 상오10시 서울鍾路區明倫洞 成均館大 대강당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과 잇단 일본각료의 망언을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유림대표들은 이날 「일본의 사실왜곡 규탄한다」「일본만행 규탄한다」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트를 들고 일본을 규탄한뒤 『친일잔재를 일소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망상을 경계하자』는등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평양 崇義동창회도

평양崇義여학교 동창회원30여명은 23일 상오11시 서울鍾路2街 파고다공원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편찬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週末에 잇단鑛山事故

忠北·江原 鑛夫3명숨지고 3명埋沒

【永同·太白·江陵·寧越】주말인 21일과 22일 이틀동안 충북과 강원도내에서 3건의 광산사고가발생、3명의 광부가 그자리에서 숨지고 3명이 매몰돼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있다.

▲21일하오9시10분께 충북 永同郡上村面 林山里 양주금광(대표 李東殷·67)광부 숙소에서 광산채굴용 다이너마이트가 폭발、광산잡부 張鉉順씨(26·경기加平郡外西面上泉里118)가 그자리에서 숨지고 숙소내부 6평이 대파됐다.

▲21일하오3시께 강원도 溟州郡邱井面彦別2里4반 신일탄광2구2갱 지하70m지점에서 채탄작업중이던 선산부 南雄基씨(29·강원도旌善郡臨溪面松溪里2반)가 천장에서 무너져내린 1톤가량의 탄더미에 깔려 그자리에서숨졌다.

▲22일상오3시께 강원도 太白市 함태광업소 고목갱지하5천50m지점의 채탄막장 천장에서 3톤가량의 탄더미가 무너져내려 작업중이던 崔鍾道씨(40·太白市所道洞)、李在勳씨(43·〃)、鄭相煥씨(39·〃)등 광부 3명이 매몰됐다.

사고직후 광업소측은 45명으로 구성된 긴급구조반을편성、구조작업에 나섰으나 갱이 계속 무너져 내리는데다 암반까지 나타나 23일상오7시현재 생사여부를 확인치못하고 있다.

▲22일밤11시5분께 강원平昌郡美灘面平安里 명지탄광2갱 5백m지점 막장에서 채탄작업을 하던 선산부 이한기씨(43)가 천장에서 떨어진 3톤가량의 탄더미에 깔려 숨졌다.【聯】

住民·業者서로提訴
LPG충전소 문제

【大邱】大邱市가 주택밀집지역에 LPG충전소 설치허가를 내주어 주민들이 주거환경 침해라고 주장、법원에 소송을 내자 업자가 이에맞서 주민대표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10년만에 狩獵허가

江原 11월1일부터 넉달간

【春川】강원도는 지난72년 수렵금지조치이후 10년만에 처음으로 도내 일부지역에대해 수렵을 허가、오는 11월1일부터 83년2월28일까지 4개월동안 조수를 포획할수있도록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내 수렵가능면적 1만2백37km²중 春川·原州·江陵·束草·鐵原·楊口·高城등 7개 시군전지역과 雪嶽山·五臺山등 공원및 관광유원지·문화재보호구역등 6천6백56km²를 제외한 3천5백81km²를 유료수렵장으로 설정、멧돼지·산토끼·고라니·수꿩·산비둘기·까마귀·오리류(원앙이·원앙이사촌·황오리·혹부리오리제외)·도요새류·참새등 9종의 조수에 한해 수렵할수있게한다는것이다.

수렵방법은 엽총과 공기총만으로 조수를 포획하되 수렵이 허용되는 11월1일부터 83년2월28일까지 장기수렵을 할 경우 35만원의 수렵장사용료를 내야하고 단기 3일간수렵할 경우 7만원의 수렵료를납부해야한다.【聯】

상바르氏遺骸도착
遺言따라 海印寺로

초대 주한프랑스대사를 지냈던 로제·상바르씨의 유해가 22일 하오3시30분 대한항공902편으로 金浦공항에 도착했다.

상바르씨의 유해는 생존시 그와 가깝게 지내던 한국인 權玉淵씨(59·화가·서울中區新堂동340)의딸 權이나씨가 파리에서 운구해왔는데 이날 공항에는 權씨부부와 주한 프랑스대사관직원、외무부관계자들이 나와 고인의 유해를 맞았다.

◇화가權玉淵씨의 딸 伊娜양이 파리에서 로제·상바르前주한 프랑스 대사의 유해를 안고 귀국했다.

기승더위 한풀꺾여

處暑지나 가을 성큼

제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가 處暑(23일)를 고비로물러나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처서인 23일의 낮기온은 서울이 가장 높은 27.5도였으나 春川이 26、大田24·7、江陵21·3、淸州25·9、全州25·4、光州25·3、木浦26·3、大邱23·9、濟州22·4、釜山22·2도로 평년보다 3~4도가 낮았다.

중앙기상대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부터 확장해온 선선한 대륙성고기압 세력에 밀리면서 양쪽 고기압경계가 우리나라 남쪽에 형성되어있어서 지난 주말부터 무더위가 가시고남부지방엔 간간히 비가뿌리고 있다고 밝히고 24일 날씨도 전국이 흐리고 영·호남지방은 곳에따라 비가 내릴것으로 예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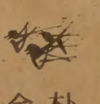
기상대는 한기를 머금은 대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은 당분간 아침최저 18~20도、낮최고 26~29도 안팎의 분포를 보일것이며 남부지방의 비가 개는 27일께부터 맑고 선선한 초가을 날씨를 보일것으로 내다봤다.

바다낚시 갔다가 3남매 파도속에

【木浦】22일하오4시30분께 전남務安郡智島邑 屛風2區 촛點島앞 7m해상에서 이마을 朴映出씨(35)의 장녀 미경양(13·병풍국교6년)과 장남 효주군(9·병풍국교2년)、차남 인기군등 3명이 바다낚시를 하다가 파도에 밀려 인기군은 현장에서 익사하고2명은 실종됐다.【聯】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97>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양달 ㉜

스위치를 누르고나서도 한참동안이나 죽을통 살통 주드리대고 나서야 간신히 켜진 침침한 형광등 불빛밑에 펼쳐진 온갖 궁상의 구색들을 낱낱이 떠올렸다.

못생긴 주인 여자가 음탕하게 웃으며 펴놓은 분홍빛 타프타 이불, 한쪽이 기우뚱 처진 낮은 천장, 책상다리에 아무렇게나 나동그라진 소주병들, 방구석마다 수북한 양말짝과 내복, 꽁초와 가래침이 함께 수북하게 엉겨붙은 재떨이, 끈끈한 비닐장판…. 그 스산한 방구석에서 몸을 합친 남녀가 짐승처럼 징그러워 그녀는 부르르 몸을 떨었다.

그러나 수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증오가 결코 순수하지 못함을.

그녀는 실은 질투하고 있었다. 그 짐승만도 못한 짓을 대연에게 빼앗긴 걸 억울해하고 있었다.

『책임을、그 엄청난 일의 책임을 도대체 어떻게 질 거예요?』

그녀답지않은 저급한 감정의 혼란을 겨우 수습하고 이렇게 물었다.

『그 여자를 책임지고싶어, 미치겠어. 그렇지만 그 여자를 어디가서 찾는다지?』

그가 어깨를 움츠리자 소년처럼 왜소하고 가련해보였다.

『그애를 사랑했군요?』

『모르겠어、그렇게 책임감없이 한 여자를 범해보기도 처음이지만、한 여자를 책임질수있기를 뒤늦게나마 이렇게 열망해보기도 또한 처음이야』

그의 직시(直視)는 날카롭지 않고 철저한 사람다운 가슴이 멍했는데도 수지는 가슴이 절린 것처럼 아팠다.

『부럽군요。그애가』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교태를 보이며 말했다。헛점을 보인 것 같아 아차 싶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심심한가?』

『네?』

『심심할 때마다 나를 골탕먹일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무슨 말을 그렇게?』

『결혼하면 더 심심해질걸。정 심심하면 놀러나와。상대해줄테니』

그녀가 모욕감에 치를 떨었으나 그는 이미 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처진 뒷모습을 보이고 찻값을 치르더니 한번도 뒤돌아 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따귀를 얻어 맞았을때보다 더 얼얼하고 비참했다. 그녀는 공들여 얼굴화장을 고치고 밖으로 나왔다.

혼자서 저녁을 사먹고 밤거리를 무턱대고 걸었다. 치한、미친 자식、내가 심심할거라구? 그녀는 무턱대고 걸으면서 무턱대고 그 생각만 했다.

수지가 돌아왔을때는 꽤늦은 시간이었는 데도 수철이 내외는 깨어 있었다.

몸을푼지 얼마안되는 영란은 몸매가 약간 덜 원상복귀된 상태인채 풍만하고 느긋해보였다. 손이 귀한 집안에 들어와서 이년아니면 삼년터울로 사내를 낳아놓은 정숙한 여자다운 관록과 자신감이 몸에 배어있었다.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수철의 시선엔 자랑과 사랑이 넘치고있었다.

아이들을 재워놓고 둘만의 시간을 오붓하게 즐기면서 수지를 기다리고있었던듯 그들은 아직 거실에 있으면서 샹들리에는 끄고 갓스탠드만 켜놓아 은은하고 정겨운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다녀왔읍니다 는 한마디로 거실을 지나치면서 수지는 수철이가 원정(園丁)으로서 무엇을 지키고자 했던가를 알것 같았다. 정철이야말로 가정의 복이요 터주대감이었다. 그 스산한 한숙방에서 한에게 함부로 몸을 더럽히는 오욕이 따위가 도저히 끼어들수 없을만큼 그들의행복은 완전했고 배타적이었다.

海外演藝

발리島서 휴가보내

○…커크·더글러스를 포함한 10명의 미국인기배우가 자카르타에서 열리고있는 제4회 인도네시아영화제(9~14일)에 참석、인도네시아는 미국배우의 물결을 이루고있다.

파라·포세트、트리니·로페즈、에드·에임즈、리처드·라운드트리、바브라·벤튼、조나산·윈더스、주디·N·테일러、클리프·로비슨、피터·그레이브등 할리우드의 인기배우등 대거참석하자 영화팬들은 이들을 보기 위해 아우성을 치기도. 미국배우들은 영화제가 끝난다음 지상의 낙원으로 불리는 발리섬에서 며칠간 휴가를 보내게될 것이라고 영화제집행당국은 말했다.

"나는 萬能배우다"

○…코믹한 연기로 인기를 모으고있는 미국의 재크·레먼은『나는 어떤 연기도 해낼수 있는 만능배우이지 결코 코미디언이 아니다』고 큰소리. 최근 화제작「실종」에서 아버지역을 맡아 열연한바있는 그는『레먼에게 꼭어울리는 역』이란는 말이 이제는 듣기 싫다며 자신은 결코 코미디전문배우가 아님을 강조.

연기생활 29년동안에 40편의 영화와 5백여회의 TV쇼에 출연한 그는 요즘 기가올라 1편당 출연료가 1백만달러가 넘는다.

레먼은「미스터·로버트」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을、「세이브 더 타이거」로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받았으며 7차례나 주·조연후보에올랐었다.【外信·外紙綜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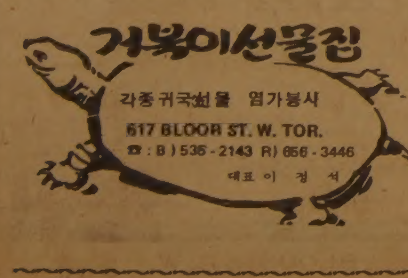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海城酒家
SEA CASTLE RESTAURANT
— 해성주가 —(구 : Sea King)
한국인 고객여러분, 과거 Sea King레스토랑이 장소를 옮겨 다시 Open했읍니다. 옛정을 잊지마시고 다시 찾아주십시오.
◇순수 중국광동식 음식 ◇일류 요리사들만 채용.
◇특히 해산물 전문. ◇1주내로 술허가 나올예정.
◎ 매일 OPEN(일요일포함) 오전10시~새벽3시까지
591 Gerrad St. E. (게랄드×브로드뷰)
새빌딩 Unit B1, B2, B3 (아래층지하실)
☎ 465-8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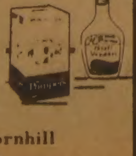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 · 짬뽕 · 짜장면
해장국 · 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김명종한약방
침 · 보약(탕약과 에스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 기혈부족 · 신경과민 · 노이로제 · 허리병 · 근육통 · 부인병 ·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 웅담.
한약과 경전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 411
☎ : 745-2058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 매혹의 가수 배성 특별출연 ★★
◎7, 8월 여름휴가중 영업시간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Family Product Distributor
도매상과 값을 비교해 보십시요.
저렴한 가격으로 무료 배달($60이상일경우) 합니다.
취급품목
Paper towels, 화장지, Detergent, 각종 Soap, 세탁비누, Pampers, 종이봉지(Paper bag)



87 Green Lane, Unit 10 Thornhill
주문☎ : 889-9757

Grant Brown
쎄일즈 · 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왜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 W.
781-9122
Wilson · Eglinton · Bloor · Keele · Bathurst · Bayview · CHINA HOUSE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 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저녁6시 이후 전화바람)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심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K.D.K.Construction Co.
Met. Lic.B4298. Inside & Out
Renovations. Home Repairs.
Carpentry. Dry-Wall
Plastering. Ceiling
Concrete Work. Plumbing
Painting. Wall Papering
Tiles Etc.
921-8163
Mr. Reg. Kimura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팰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12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유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신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전학교

아스노마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삿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이 영두·이전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식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당신기업은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읍니까?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설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신 준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 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선인구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Downtown에 사시는 분으로서 하루 3~4시간씩
집안일 도와 주실 여자분.(Bloor + Jane지역)
전화 : 769–4366 오후6시 이후 김.

일본식당 웨이트리스 키친헬퍼구함. 특히 한국인 무경험자 환영. 9월말 개업. Finch Subway 5분거리.
전화 : 826–7676(R), 222–1621(B). Mr. 모리

여자 캐쉬어 토·일요일하실분 구함.
오전12시~저녁8시까지. 다운타운.
전화 : 921–0624

유경험자(남자) Helper구함. (Full & Part time 또는 주말)
스카브로지역 거주하시는 분 환영.
대우 우대함. 전화 : 691–8602

지렁이를 계속 잡으실분 원함.
전화 : 922–3061

가정에서 봉제품을 완전히 만드실분 구함.
전화 : 530–1046 (Mrs.한)

유경험자 여자 Cashier 구함.
Western Area. 내방바람.
261 Scarllet Road at Eglinton Ave. W.

일본음식점에서 일할 키친헬퍼(접시닦는것 포함) 구함. 9월7일부터 일시작, 오후2시30분이후 전화요망. 전화 : 421–6016

Milk Store에서 일하실 여자 Cashier구함(유경험자)
오전 8시–오후 4시(Downtown지역) Full Time
전화 : 624–5817 (Mrs. 차)

Part Time Sales people for painting & other Art objects.
전화 : 920–1420(저녁시간에 영어로 문의바람)

치과에서 일하실여자 Receptionist 구함.
경험있으신 분이면 더욱 환영하며 영어를
자유로 구사하실수 있는 분이어야 함.
전화 : 233–9454 or 233–4888
Dr. Mark Kochman

"봉학농장" 본농장에서는 토론토는 물론 타지방(캘거리, 에드몬튼, 몬트리얼) 교포들에 바쁜 생활에 실질적인 편의와 수요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새 건물을 신설하여 식품가공 업무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고유한 맛인 각종김치, 깻잎, 고추잎장, 다꾸왕, 짠지무등을 생산하는데 경험과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농장에서 장기 기거하며 수고하실수 있는 여자 약간명 구합니다.
전화 : 1–775–6256 Mr. 강

Mac's Milk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Full Time)
South of Eglinton & Kennedy
전화 : 261–4082 (Mrs. Lee)

제일식품에서 일하실 아주머니 구함.
(Full Time) 전화 : 532–1054

가게 학생 Helper 구함.
매일 학교수업후 2시간~3시간씩 Help 요!
Kipling & Albion 지역. 전화 : 741–4692

베비시터

입주하셔서 두 아기와 가사돌볼분 구함.
위치 : 나이아가라에서 20분거리 미국 버팔로 뉴욕.
전화 : 1–716–634–5839 (오후 5시이후 연락바람)

아기보아 주시고 살림 약간 도와주실분 구함.
(일요일은 쉼) (Bloor & Jane)
전화 : (B)535–1210 (R)762–2562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프로페셔날 바이올리니스트의 개인지도를 받으실분 연락주십시요. (all level)
Call Mr. Wong 233–4200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저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광고문의, 신청 : 533–2361~4

매매

House Sale or Rent (Special Discount)
위치.: Victoria Park & Van Horne
Det. Brick, 3 Bed Rm. Bung. – Cent. Air Con.
2 Car Gar. with Elect. gar. Door Openner
Mortgage: 1st. $66,000(13%), 2nd. V.T.B.
Sale: $149,000, Rent: $850–$700. 전화 : 494–9679

소매상점을 짓기에 대단히 좋은 지역임(New Market)
500 sq.ft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는 대지
135 ft.(전면) by 140 ft. 전화 : 889–2075

Private Sale. 파킹장 구비한 상업지역의 Builing 매매.
모든 Business에도 적합한 좋은 조건의 위치.크기 : 8 Rooms.
아스킹 : $219,000 전화 : 921–9847, 923–2872 (William)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5년리스 + 5년옵숀 주매상: $3,500 아스킹: 2만5천불 (이층 살림집 있음) 전화 : 463–8674

615 Bloor St. W 에 위치한 성업중인 식당 매매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새로운 Mall속에 Hamberger & Coffee
20년의 장기 Lease에 Rent : $1,060.
현주며상 : $2,500. 앞으로 6개월내에 $5,000 보장.
주6일 영업(Short Hour). 다운페이 : $50,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베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집렌트

방세놓음. Pape Subway에서 1 Block 거리.
노인부부 혹은 여자분 환영함. $260/M.
전화 : 282–0236, 968–6284 (4시이후 연락바람)

아파트렌트

아파트 "Sublet" (다운타운 지역) 9월1일 입주가능.
위치 : Queen St. & Roncesvalles 1 Bed Rm/$406
(하이드로 포함) 전화 : 536–4701 Mrs. 리

2 베드룸 아파트 렌트 $380
(리스 한달반 남았음) 105 Westlodge Ave.
(Queen+landsdowne) 전화 : 531–0960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R)743–4842 Mr. 마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춘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CEDARBRAE VOLKSWAGEN
666 Markham Rd. Scarboro.
전화 : 438–1900(B), 499–8589(R) 손명철(Michael son)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순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메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 30분까지

선물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한인식품 구매 주식 회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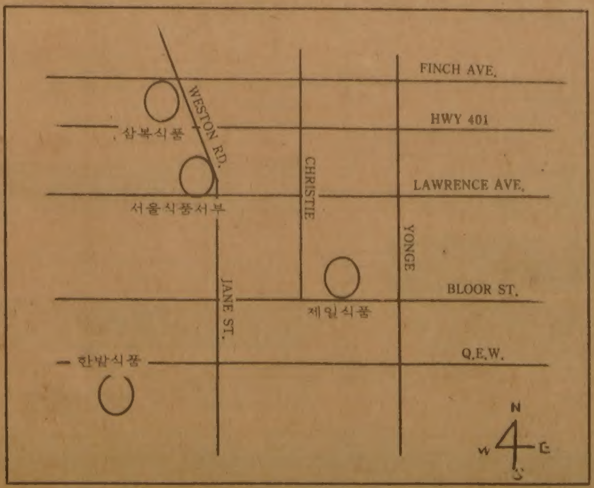
설립기념세일

기간 : ~12월25일까지

		SPE	REG
● 장미쌀	50Lb	14.95	~~16.95~~
● 햇조기	33Lb(1Box)	49.95	~~59.95~~
● 낚지	2Lb(Bag)	7.95	~~9.95~~
● 회조개깐것	2.2Lb	7.95	~~10.95~~
● 우동국수	5Lb	3.99	~~4.99~~
● 막국수	5Lb	3.99	~~4.99~~
● D.Y 참기름	60온스	7.99	~~9.99~~

※ 각 식품점 CASH REGISTER 영수증을 모아주세요.

◈ 200불마다 사뽀로라면 1BOX FREE
◈ 300불마다 가도야참기름(60온스)
◈ 400불마다 D.Y가주미 50LB F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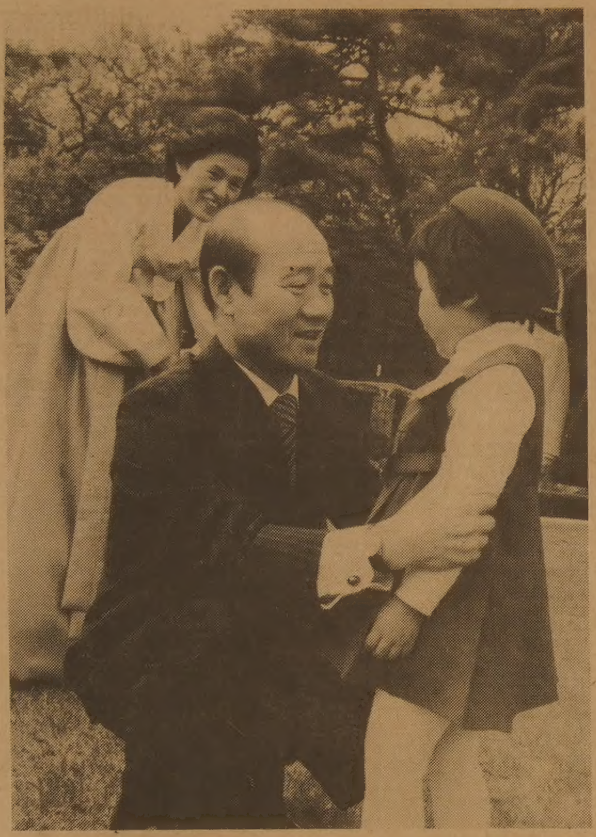
삼복식품 743—8270
2437 FINCH AVE. W.

제일식품 532—1054
712 BLOOR ST. W.

한밭식품 274—5401
466 SOUTH SERVICE R

서울식품 서부 243—9544
1391 WESTON RD.

환 영



전두환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캐나다 공식방문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대통령 각하의 캐나다 방문으로 양국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유대강화, 더나가 한인 교포사회의 지위향상및
단결이 공고히 될것으로 확신하는 바 입니다.

1982년 8월

토론토지구한인회

노년회
동우회
무역인협회
실업인협회
승공문화협회

와이즈맨클럽
재캐나다대한체육회
코리아타운번영회
태권도협회
해병전우회
88올림픽후원회

경 축

전두환대통령각하내외분의 캐나다 방문을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전대통령 각하의 캐나다 방문으로 양국간의 정치·경제·사회 및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유대및 우호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캐나다 한국외환은행

본 점
☎ : 364-2890

지 점
☎ : 533-8593

캐나다은행들이 취급하는 모든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친절히 처리해 드립니다.